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한인들에게 적극 다가가겠다 한인들 편하게 방문해 달라"

김용현 총영사 본사 방문 인터뷰 가져
"상대방 마음을 사는 외교" 펼치겠다
"엄 총영사 너무 잘해 부담" 더 노력할 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김용현 총영사가 한인사회와 적극 교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영사는 8일 오전 울스톤 소재 보스톤코리아를 방문해 인터뷰를 갖고 한인사회에 대한 구상, 향후 총영사관 운영 청사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한인사회가 (전임) 엄성준 총영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다. 너무 잘하셔서 부담스럽다" 며 "이를 이어받아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부임한 김 총영사는 그동안 평통 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6일 보스톤한미예술협회 후원 만찬에 참가해 보스톤 한인사회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김 총영사는 9일 총영사관에서 신

년하례회를 갖고 만남의 자리를 계속 이어갔다.

"외교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는 김 총영사는 특히 이날 인터뷰에서 "대화, 소통, 교류" 세가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총영사관에서 한인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 한인들도 총영사관을 아주 편하게 방문해 달라" 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보스톤 지역적 특성상 "문화, 지식, 정책의 교로 대변되는 공공외교를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 라며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한인회의 공백사태와 이북도민회의 갈등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총영사관이 어떻게 측면에서 >>2면으로 계속



보스톤코리아 회의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김용현 총영사

미 세관 셀폰 등 전자 장비 수색권한 제한

충분한 범죄 사유 있을 때만 "집중 수색" 전자기기 저장내용만 수색, 클라우드는 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출입국시 미 세관및국경수비(CBP)는 "합리적인 혐의" 가 있을 때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개인 전자 장비를 "집중(advanced)" 수색할 수있다고 미정부는 5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세관및국경수비(CBP)는 계속해서 클라우드가 아닌 전자 기기에 저장된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전자기기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외부 기기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즉 범죄 행위이란 합리적인 의심 또는 미국안보에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만 전자기기 집중수색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미 세관은 지난해 동안 30,200개의 전화기 및 다른 전자기기를 검사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무려 60%가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출발 비수기 최저가
인천행 항공권 \$889.00

미세부 3대캐년 패키지 \$470~

1인 요금 12월 1일 사용기준 / 4박5일 / LA 소인 / 정항공 포함

IACE TRAVEL
www.iace-korea.com
1.617.424.8956
1.866.619.4223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신년맞이 이벤트
1월까지 한달 무료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총영사관이 한인들에게 적극 다가가겠다. 한인들 총영사관에 편하게 방문해 달라"

▶▶1면에 이어서
협력할 수 있는지 길을 찾아보고 고민 하겠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인사 회 대표, 원로, 그리고 직능단체들의 의 견을 청취해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 다.

이날 인터뷰에는 권성환 부총영사 와 고성민 영사가 총영사와 함께 참여 했다.

-보스톤에서 일주일이지났다. 보스 톤의 첫느낌은?

기본적으로 보스톤은 미국 지성의 중심이며 문화예술도 발달되어 있다.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 바이오 테크 및 혁신의 리더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 스톤은 문화외교, 지식외교, 정책외교 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외교를 복합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다.

-부임 후 하루 만에 평통 간담회 그리 고 일주일안에 한미예술협회 행사에 참 여했다. 벌써 두 단체를 접한 것인데 직 접 접한 보스톤지역의 한인사회는 어 떻 는지 궁금하다.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맙 다. (두 행사에서 경험한 바로는) 보스 톤 한인사회 전문직 종사분들이 한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보스톤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 해서 한국과 뉴잉글랜드 지역간의 교

류협력을 증진시키겠다.

-신년사를 통해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 갈 것이며,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총영사 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런 측면 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외교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버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학, 한국역사, 문화 등을 다루 는 지식외교, 대북정책 및 한반도 문제 를 다루는 정책외교, 한국 알리기, 한류 확산을 다루는 문화외교를 통틀어 공 공외교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 드렸듯 이 이 공공 외교를 복합적으로 추진하 겠다.

한인들의 실질적 삶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는 한인사회가 주류사회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할 수 있도록 각 직능단체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 다. 특히 총영사관이 한인사회에 적극 적으로 다가가고 항상 총영사관에 편 하게 와서 저희와 이야기 할 수 있는 소 통의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

공공외교에 있어서 한인사회가 보 유한 지적 수준, 탤런트, 자산, 유학생 들 한인사회를 활성화는 같이 노력하

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유학생 들의 경우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 록, 미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노력하 겠다.

-미국내에서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 는 3명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마크바잉턴 하버드 교수가 한국의 지원 중단으로 지난해부터 연구를 중단하고 중국사를 연구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사 에는 뜨거운 관심을 보인다. 한국의 촛 불 정권이 탄생한 만큼 바잉턴 교수의 연구 재개를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하다 .

기본적으로 한국학 연구 진흥을 외 교부도 한국 교류재단에서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크바잉턴 교수 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이후 하버드 한국학연구소 등 관 련된 분들을 찾아 뵙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한인사회 관련해서 전임인 엄성준 총영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류하 셨고 활동하셨다. 김 총영사께서도 엄 총 영사처럼 한인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시는 정책을 펼칠 것인가?

당연히 그래야겠다. 저도 엄성준 전 총영사님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인사회와 교류, 대화를 적극적으로



김총영사는 8일 오전 올스톤 소재 보스톤코리아를 방문해 인터뷰를 갖고 한인사회에 대한 구상, 향 후 총영사관 운영 청사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용현 선임 보스톤총영사(사진 우측)와 장명술 보 스톤코리아 대표 겸 편집장

한 것으로 들었다. 한인사회에서도 엄 총영사님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 을 알고 있다. 엄 총영사님이 너무 잘하 셔서 부담이 된다. 그 바탕 위에서 그것 을 이어받아 더 쌓아 나가려고 한다.

-보스톤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천 직항이다. 보스톤 직항설도 나오 고 있다. 혹 직항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 으 신지?

과거에 보스톤 인천 직항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 한인사회도 염원하고 있 는 것으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좀더 상황을 파악해보 겠다. 기업이 경영하는 항공회사이니

현실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 지 방안을 노력해보도록 하겠다.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거쳐서 보스톤 에 오셨는데,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인지 설명을 해달라.

외교부에 한반도 외교교섭본부가 있고 차관급의 본부장이 이를 이끈다. 이 본부안에 북핵외교 기획단과 평화 외교기획단이 있다. 북핵외교 기획단 은 북핵문제를 다룬다. 평화외교기획 단은 처음 창단시 북핵 해결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항구적 인 평화를 달성한다는 것을 주목적으 로 세워졌다. 외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총영사관 단체장 초청 신년하례회

김용현 총영사 부임후 첫 단체장들과 만남

▶▶ 2면에 이어서 교부에서 북한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서다. 근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는 일을 해왔다.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이 2년만에 열리게 됐다. 평창 올림픽 협력뿐만 아니라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충분한 대화 소통도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다.

-보스톤은 한인화장이 없어 한인회가 공백사태다. 또 이북도민회는 내부 갈등으로 한국의 이북도민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총영사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인회가 조기에 정상화되고 복원되도록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인 대표자들과 자주 만나고 한인회 원로, 직능단체들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한인회장 공석인데 원상 복구할까 고민하겠다.

이북도민회도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은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상호 비판을 정반함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 작은 한인사회에서 한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신임 김용현 총영사는 1월 9일 뉴튼 소재 총영사관에서 한인사회 단체장 및 주요인사들을 초청, 첫 부임 인사 및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김 총영사는 부임인사를 통해 한인사회 지도자들과의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 한인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인회의 공백사태를 하루속히 정상화시키는 데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김 총영사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의 안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스톤은 유학생 및 단기체류자가 많은 도시인 만큼 미국당국과 협력하여 사건 사고 처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신임 김용현 총영사는 1월 9일 뉴튼 소재 총영사관에서 한인사회 단체장 및 주요인사들을 초청, 첫 부임 인사 및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장과 단체장들도 새해 비전을 제시했다. 로드아일랜드 이재영(모니카 리) 회장은 40년만의 한인회관 건립에 대해 밝히고 총영사관과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동포사회가 힘차게 전진해나갔으면 한다고 신년인사를 전

했다. 유영심 직전노인회장은 노인회 활동에 총영사를 초대했고 정정숙 보스톤한미예술협회 이사장, 이현경 재미한국학 교협의회 회장 등도 신년인사를 건넸다.

서 민주평통 보스톤지역협의회에 우수 지역 협의회상을 전수했다. 윤미자 보스톤 평통회장은 전임회장들의 역할이 컸다며 감사를 전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자문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영사는 이날 신년하례식에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 한인회 한인의날 선포식

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키터리커뮤니티센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 전 11시 키터리(Kittery, ME) 소재 키 햄프셔 한인회는 2월 10일 토요일 오 터리커뮤니티센터에서 신년하례 및

한인의날 선포식을 갖는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행사후 한식 오찬을 갖고 뒤풀이 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오는 2월 1일 까 지 (603-767-1356; spark@comcast.net) 참가여부를 미

리 알려야 한다.

조은경회장은 "행사 후에는 한국에서 공수된 선물을 드린다.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설날을 즐기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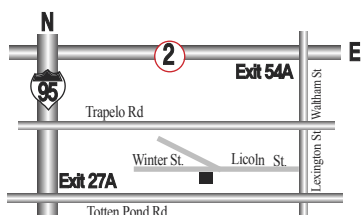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Saturdays 3/17/18 - 5/26/18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Saturdays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Saturdays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Saturdays 3/24/18 - 5/26/18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보스톤한미예술협회는 1월 6일 버링톤(Burlington)소재 스프링세븐 클럽하우스에서 신년 만찬을 갖고 지난해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해의 출발을 다졌다

한미예술협회 신년 파티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미예술협회는 1월 6일 버링톤(Burlington)소재 스프링세븐 클럽하우스에서 신년 만찬을 갖고 지난해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해의 출발을 다졌다.

40여명의 보스톤한미예술협회 이사와 집행위원회 위원 그리고 후원자들이 참가한 이날 만찬에서 참가자들은 한식 부페의 저녁을 함께 나누고 이사, 집행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 부임한 김용현 총영사는 “보스톤의 총영사로 부임이 돼서 영광스럽고 한인사회와 함께 일하게 돼서 즐겁게 생각한다.” 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공관장 회의 만찬에서 사람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듯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외교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예술협회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왔던 것에 경의를 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예술협회가 추진하는 설날잔치도 교류재단을 통해 지원을 요청해 지원키로 했다” 고 격려기도 했다.

김병국 보스톤한미예술협회 회장은 이사와 집행위원, 그리고 지역 단체장 등을 소개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참석자들은 6년째 접어든 예술협회의 발전을 함께 축하하고 새해인사를 나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올해 2차 정기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1월 20일 토요일 올해 두번째 정기 간행으로 뉴햄프셔 모건 피어스 마운틴(4312ft)을 등반한다.

이번 산행의 왕복 산행 거리는 6.4 마일이다. 산행시간은 약 5시간 정도이다. 난이도는 4.0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다.

겨울 산행이니 만큼 배낭, 등산화, 각반(Gaiters), 트레킹폴, 아이젠(MicroSpikes or Crampons), 고글, 스패츠,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식수, 간편중식 등 겨울철 산행 준비

비를 해야 한다.

집결지는 Park&Ride Exit2 of RT93으로 오전 7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한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11월 16일(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참가가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617-780-9588(들꽃향기)로 할 수 있다. 날씨 관계로 산행지 변경 및 4명 미만인 경우 취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 세관 셀폰 등 전자장비 수색권한 제한

▶▶1면에 이어서 증가한 수치다. 세관은 이 같은 숫자는 입국자들의 아주 적은 부분인 0.00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세관측은 “세관의 전자기기 수색 확대는 테러, 아동 포르노, 수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그리고 비자사기 등과의 전쟁에서 아주 유용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조치가 많이 나아진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 정부가 영장 없이 전자기기를 검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CLU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명확하게 여행객들이 개인 전자장비의 비밀번호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면서 “미 의회는 세관및국경수비가 이 규정을 더 개선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보경 Bokyoung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정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新 홍삼정

저온숙성방식 도입으로 유효성분 강화 및
맛/향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홍삼 유효성분 최적화
진케노사이드 7종 38% UP
아데노신 14종 70% UP
아데노산 368% UP
비유효성분 감소
전분질, 심부질 10% Down

공법 변경과
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6년만에
인상됩니다.
\$199.27
▼
\$204.44
Tax 포함

FREE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홍삼정 120g 2개 구입시도
같은 프로모션 적용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북한 탈북자의 생생한 목소리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생 동아리 주최 탈북자 행사
탈북 난민 쉼터 및 교육센터인 '이노크' 소개도
'평창을 위한 팡파르' 직접 연주도 들을 수 있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행사가 하버드케네디스쿨에서 개최된다. 또한 보스톤지역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연주되는 다양한 음악과 댄스 무대도 선보인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생동아리 북한연구그룹(NKSG)의 주최로 1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케네디스쿨 몰킨 펜트하우스(Malkin Penthouse)에서 <탈북자들의 목소리>란 제목의

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탈북난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그레이스 조가 참가해 북핵 문제에 가려진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시카고에서 4년간 미주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한 쉼터 및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이노크(ENoK)에 대해 흥성한 회장의 소개도 있다. 이노크는 시카고 시설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미 동부에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0분의 강연 후에는 2015년 통일안보비전대회 보스톤대회 우승 팀인 프리버드의 '흠, 스위트' 이란 주제의 댄스공연이 이어진다. 평창올림픽과 관련 대관령 음악제에 위촉된 "평창을 위한 팡파르"를 클라리넷, 피커션, 현악4중주 팀의 연주로 들을 수 있다. 이 곳을 작곡한 김택수 박사가 직접 참가한다.

작곡가 김은영씨가 가야금과 클래식 음악을 함께 연주하도록 작곡한 럭스 아테르나(Lux Aterna)가 처음으로 연주된다. 소프라노 김영은 씨가 산유화와 아리랑 두곡의 가곡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영화 <신과함께> 보스톤 상영 12일로

당초 5일 상영에서 극장측의 취소로 연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에서 개봉 2주만에 천만관객을 돌파한 블록버스터 영화 <신과함께>의 보스톤 개봉이 연기됐다.

당초 영화 <신과함께>는 지난주 5일부터 보스톤 커먼 로우스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극장측의 갑작스런 대관취소로 인해 개봉이 연기됐다.

영화 <신과함께>의 배급사 웰고유에스에이측은 보스톤의 극장측과 상의한 끝에 12일 상영 약속을 받았다. 폴신 이사는 "보스톤의 상영관 섭외가 극히 어렵다"고 말하고 "극

장측은 지난 연말 상영영화가 많아 대관이 취소하게 됐다며 보스톤 관객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정우·차태현 주연의 판타지 영화 <신과함께>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4월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웹툰을 영화화한 <신과함께>는 개봉이후 박스오피스 선두를 놓치지 않았고 16일만에 1천만을 돌파했다.

천만 영화는 한국영화로는 16째이다. 2018년 들어 첫번째 1천만 돌파 영화이기도 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캠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캠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대니얼 고 후보가 2017년 4사분기 동안 81만불을 추가로 모금해 선거자금모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덴고 4분기 80만불 선거자금 모금

총 1백60만불, 9월 이래 2200명 선거자금 기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제 3지역구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고 있는 대니얼 고 후보가 2017년 4사분기 동안 81만불을 추가로 모금해 선거자금모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덴고는 9월 한달동안 무려 80만 6천불을 모금해 주위를 놀라게 했었다. 총 모금액은 1백60만불이다.

보스톤 글로브는 그의 이 같은 선거자금 모금은 그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굳히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 선거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이 신문은 첫 선거직 출마 후보가 버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모금이 라고 보도했다.

대니얼 고 후보 선거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천200명이 기부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200 이하의 소액기부자들이다. 이들 기부자들은 제 3지역구의 37 시와 타운 중 절반에 달하는 커뮤니티 거주민들로 이뤄졌다. 덴고는 그동안 37개 커뮤니티를 모두 돌아다니며 유권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었다.

대니얼 고 후보는 “이처럼 계속된 강력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이 같은 강력한 선거자금 모금은 경쟁력 있고, 뿌리 지지를 받는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우리의 선거본부는 좋은 일자리, 건강보험, 저렴한 주택, 그리고 양질의 교육 등 제 3지역구와 미국 전체에 ‘아메리칸드림’ 의 기초가 되는 이슈들에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아메리칸 드림이 위협받고 있다” 는 고 후보는 “기꺼이 맞서서 아메리칸드림을 방어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기꺼이 이런 도전을 할 의사가 있다. 나는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노동한다면 더 나은 삶을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한편 대니얼 고 후보는 강력한 선거자금 모금 이외에 뱃두은 시의 시의장인 제니퍼 캐난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다.

hsb@bostonkorea.com

한 미국 여자의 한국 사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권조이 기자 = 애국가를 듣고 소름 돋으며 가득한 감정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나, 6년전의 어느 봄 날에 상상할 수 없던 현상이 나타났다. 나의 한국 사랑을 시작하게 된 그날. 내 인생에서 한국에 대한 존재를 모르며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케이팝이나 케이드라마로 생긴 원인으로 아닌 단지 하나님의 우연으로 나타난 사랑이었다. 한국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을 시작한 때까지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끊임없이 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대(大)- 세계사회는 대부분 미국을 최고의 나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미국이란 나라에서 모든 것이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지도를 보면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로 보일 수 있는데도 나의 인생에 아주 중한 의미를 가져 큰 영향을 주는 곳이다. 미국 나라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 나라에게 오래 전부터 큰(大) 사랑을 주고 있었다.

한(韓)- 한국 국민도 아닌 내가 벌써부터 이미 한국인이 된 것 같다. 어떤 낯선 땅에서 새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적응하기 어려워 남들과 친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가지는 사랑을 통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길거리에서 찾은 외국인을 보며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한국인처럼 또 다른 외국인을 보기에 낯설다. 외모는 단



지 백인하고 같아 보이고 한국인들은 나를 오직 미국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 내가 한국인이 되었다.

미(美)-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은 모두가 아름답다. 숨이 막히는 예쁜 경치와 풍경이 계절을 지나가며 태어난 색깔과 생물, 시원한 시골의 공기, 빛나는 시내의 밤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한국.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실제로 보면 알 수 있다.

국(國)- 내가 살아온 본국의 환경하고 아무리 달라도 한국은 나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 순간부터 “드디어 집에 왔다” 는 느낌이 들며 너무나 편했었다. 일주일만이라도 한국을 떠나면 벌써 그립고 돌아가고 싶게 되버리는 나. 반짝반짝 길거리의 빛에서 24시간 문이 열린 편의점들까지, 지하철 안의 방송을 듣기와 버스 엔진 소리까지 내가 모두 좋아한다. 살아가면서 일상의 관심을 갖지 않은 디테일이겠지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이들과 같은 소리가 세상에 없겠다” 는 생각이 든다. 이는 어떤 말로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한없는 사랑의 결과

다. 인(人)- 한국의 국민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 하늘만 알 것이다. 정도 많아 상대방의 따뜻하고 전하는 마음이 쉽게 느껴진다. 한국인들의 열정과 자라는 강하고 아무 나라와 같지 않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내내 한국과 한국인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된다. 강한 성격, 끝없는 용기, 늘 노력해 포기하지 않는 힘과 많은 정 모두가 한국인들의 특별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인격이다.

여러 면에서 이 특이한 나의 한국 사랑을 느껴 보면서 정말 흔히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란 점을 깨닫는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생길 수 없는 기회를 매일 주님께 감사드리고 애초부터 세우던 부르심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간다. 나만의 힘으로 이 끝없는 사랑을 감당하기가 도저히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내주신 그의 힘과 은혜로 할 수 있다. 6년간 나는 성숙해지며 많이 달라져 한국에 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는 사람, 대한미국인(大韓美國人)이다.

jvlgwon1197@bostonkorea.com

권조이 기자는 미국인 여대생이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중이며 현재는 잠시 휴학중이다. 보스톤이 고향이며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보스톤한국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운 후 연세대에 진학해 화제를 나았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미국인의 시각이지만 한글로 글을 쓸 예정이다(편집자주).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짜라시 토크 12



이거 실화냐?

보스톤 생활속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 기사로 담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대담형식으로 풀어 냅니다. 따라서 대개 익명을 쓰며 혹은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적절히 판단해 주십시오. 혹 제보하실 독자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editor@bostonkorea.com 에 제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자 주)

뉴튼 주차단속 주의해야

기자 1= 뉴튼 Aspen Avenue 에서 지난해 11월 한 독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1시간 주차 가능 구역이었고 아이가 잠들어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위반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차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티켓을 주지 않고 지난 연말에서야 연체 통지와 함께 티켓이 날라왔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지 연체 벌과금은 붙어 있지 않았답니다.

기자 2= 보통 주차의 경우 해당 주차단속 부서에 어필하면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런 노력을 했나요?

기자 1= 네 이분은 당연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정당한 티켓 발부라며 어필을 받아들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억울한 나머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튼에서 주차티켓을 억울하게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어필이 성공하며 뉴튼시

의 경우 이 주차단속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하소연이 가슴에 자꾸 파고듭니다. 그분의 기사제보 마지막에 쓴 글을 그대로 실어 이분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볼까 합니다.

20년간 미국에서 살아왔던 남편이 침언하기를 그 주차티켓 발부하는 여자가 저희 전화번호 조회해봤을 때 제 차가 오래된 낡은 차이고 저희가 뉴튼에 살고 있지 않았고 만만한 동양 여자였기 때문에 타겟이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또 하나의 차별을 겪은 셈이라 씁쓸하긴 한데 그냥 제 남편의 사건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저의 무모한 바보같은 바람일까요?

뉴튼이라는 부촌의 불법적인 주차티켓 발부 관행에 대한 억울함을 제보하면서 가난한 여자 이민자라는 억울한 소수민족으로서 살아야 하는 제 삶도 같이 되돌아보게 되어 신년 초부터 씁쓸함을 거들 길이 없습니다.

한파에 얼어붙은 트리플에이(AAA)

기자 1= 도로상 긴급출동서비스로 유명한 트리플에이(AAA)의 서비스가 지난 한파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0-1시간 내 서비스 현장 도착이 기본인 트리플에이는 현장 도착은 커녕 전화통화가 아예 연결되지 않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트리플에이에 전화를 걸면 통화중 신호



음이 울리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2= 트리플에이에 8일 아침 현재 전화했더니 여전히 통화중입니다.

기자 1=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최소 대기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또 엉뚱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교체서비스를 불렀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어주는 점프를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기사를 그냥 돌려보내고 우연히 통화가 되어서 배터리교체 서비스를 다시 요구했는데 4시간이 지나서 온 서비스 기사는 다시 점프 여부만 물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취소할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기자 3= 한파에 트리플에이 서비스를 받는 대기시간이 4시간이었다는 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연말 한 친구는 도로상에 주차했다 시동이 안걸려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려 결국 저녁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파가 부른 한국의 안부전화

기자 2= 지난 폭설, 한파에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아예 '보스톤'이라고 지칭하면서 폭설과 한파 그리고 흥수장면을 뉴스에서 방영해 깜짝 놀란 가족들이 전화한 것입니다.

기자 3=저도 오랜만에 가족과 통화했습니다

. 모두들 괜찮으며 전화했습니다.

기자 1= 사실 저도 오랜만에 누나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슨 일이 있나 깜짝 놀라 전화했더니 괜찮으냐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로 취급하기 위해서 좀더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내야 하는데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찾아 내보내니 한국에서 뉴스를 보는 가족들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자들이 외신을 받아 쓰다 보니 구체적으로 보스톤 어느 지역에 흥수가 났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모두 큰 피해가 없다는 점을 보도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물론 뉴스성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TV화면으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기자 1=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맛있는 해물요리 전문점 루이 루이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20짜리를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사 : 루이 루이



louloui.com 617.208.8133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추운 겨울을 녹이는 스프 레시피 5가지(feat.지역 요리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혹독한 겨울 추위가 한바탕 뉴잉글랜드를 휩쓸고 지나갔다. 끔찍 얼어붙은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집안에서 줄곧 머물러야 했다.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시 따뜻한 요리를 준비해 먹을 수 있도록 지역의 요리사들이 스프 레시피를 공개했다.

보스톤닷컴에서 소개한 5가지 뜨끈한 국물 요리를 직접 시도해보자. 땀속까지 쌓인 한파를 녹여줄 것이다.

렌틸스프

도레타 타버나(Doretta Taverna)의 브렌단 펠리(Brendan Pelley) 주방장 추천 요리

재료(6인분):

- 물에 불린 렌틸콩 2컵
- 작게 깎아낸 양파 1개
- 껍질을 벗기고 작게 깎아낸 당근 1개
- 작게 깎아낸 샐러리 2줄기
- 다진 마늘 한쪽
- 같은 통조림 토마토 4컵
- 야채 육수 2쿼트
- 고수 가루 1티스푼
- 커민 가루 1티스푼
- 빨간 칠리 가루 한꼬집
- 올리브유
- 레드와인식초
- 소금과 후추
- 실란트로 (옵션)
- 그릭 요거트 (옵션)



조리법:

바다이 두꺼운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불에 당근, 양파, 샐러리, 마늘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는다.

렌틸콩과 토마토, 야채 육수를 추가한 뒤 끓으면 불을 줄이고 렌틸콩이 푹 익을때까지 30분가량 푹 끓인다.

렌틸콩이 푹 익었거나 국물이 부족하면 물이나 육수를 더 추가한다.

소금, 후추, 커민, 고수로 양념하고 레드와인식초를 조금 뿌린다.

장식을 위해 요거트 한덩이와 실란트로를 올리고 올리브유와 레드와인식초를 몇방울 뿌린다.

버터넛 스쿼시와 사과 비스크

칩스 어메리칸 바 앤 그릴(Chopps American

Bar and Grill)의 스티브 지메이(Steve Zimei)

요리사 추천 요리

재료(2쿼트):

- 채썬 흰 양파 1개 큰 것
- 4등분한 빨간 사과 6개
- 껍질을 벗기고 작게 깎아낸 버터넛 스쿼시 3파운드

껍질을 벗기고 1인치 크기로 자른 당근 1개 큰 것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테이블 스푼

얇게 썬 양파 4쪽

야채 육수 4컵

애플 사이다 4컵

타임 2줄기

월계수 잎 1개

넛맥 한꼬집

계피 한꼬집

조리법:

오븐을 425도로 예열한다. 스쿼시와 사과, 당근을

오븐용 팬에 넣고 40분가량 굽는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가열한다. 양파와 마늘을

중불에서 투명해질때까지 볶는다.

오븐에서 조리한 스쿼시와 사과, 당근을 냄비에 옮겨

담는다. 애플 사이다와 야채 육수, 타임과 월계수

잎을 넣고 모두 잘 익을때 까지 중불과 강불에서 끓인다.

타임과 월계수 잎을 건져내고 간한다.

소세지와 강낭콩 수프

크래이그 온 메인(Craigie on Main)과 더 커크랜드 탭 & 트로터(The Kirkland Tap & Trotter)의 토니 머스(Tony Maws) 주방장 추천 요리

재료(4인분):

- 1/4인치 두께로 썬 소세지 6개(모든 소세지로 조리 가능하나 킬바사(Kielbasa)와 같은 투박한 돼지고기 소세지가 제일 적합)

조리된 콩 통조림 2캔 (강낭콩, 카넬리니 등)

작게 깎아낸 양파 1개

작게 깎아낸 셀러리 1개

작게 깎아낸 당근 1개

작게 깎아낸 샐러리 2줄기

다진 마늘 4쪽

허브 한다발: 파슬리, 타임, 로즈마리, 월계수 잎

화이트 와인 한컵

대충 썬 푸른 채소 한다발: 스위스 차드, 케일

구워서 같은 팬넬 씨 1/2티스푼

칠리가루 1/2티스푼

치킨스톡 10컵

코셔 소금 및 후추



후드크림을 이용한 옥수수 스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조리법:

올리브유에 양파, 펜넬, 샐러리, 파, 마늘을 푹 적신다. 소금과 후추로 간한 뒤 소세지를 넣고 몇 분간 볶는다.

화이트와인을 추가하고 조리한다. 콩과 옥수를 추가하고 살짝 끓인다.

채소를 추가한 후 다시 소금과 후추로 간한다. 채소가 부드러워 질때까지 약 30분간 끓인다.

올리브유와 파마산 치즈를 올린다.

후드크림을 이용한 옥수수 스프

두자베 (Deuxave), 보스톤 칩스 (Boston Chops)와 디바(dbar)의 요리사 크리스 콤브스(Chris Coombs) 추천 요리

재료(6인분):

- 버터 1/4파운드
- 작게 깎아낸 양파 1개
- 옥수수알갱이 1쿼트 (옥수수 심지 따로 보관)
- 옥수수 육수 1쿼트
- 후드 크림 1쿼트
- 세리 식초 1티스푼
- 소금과 후추

조리법: 넓은 소스팬에 옥수수 심지를 넣고 자작하게 물을 붓는다. 센불로 끓인 후 불을 끄고 45분간 담가놓는다. 옥수수 심지를 제거하고 옥수를 따로 놓는다. 중간 크기의 소스 냄비에 양파와 버터를 녹인다. 양파를 넣고 투명해질때까지 익힌다. 옥수수알갱이를 추가한 후 5분에서 10분가량 익힌다. 여기에 아까 만들 어놓은 옥수와 후드 크림을 넣는다. 한번 끓고 나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15분간 끓인다. 블렌더로 부드럽게 간다 - 이때 뜨거운 요리가 블렌더 안에서 팽창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는 체에 한번 거른다. 세리 식초와 소금 후추로 간한다.

대합조개 차우더

퓨리탄&컴퍼니(Puritan & Company)의 윌 길슨(Will Gilson) 추천 요리

재료(6인분):

- 다진 1/4파운드 조개 통조림 (옥수는 따로 보관할 것)

대합조개 10개

조개주스 2-3컵

다진 베이컨 2슬라이스

작게 깎아낸 양파 1개

밀가루 2테이블 스푼

월계수 잎 1개

다진 타임 잎파리 1/2티스푼

껍질을 벗기고 작게 깎아낸 감자 1파운드

얇게 썬 파 1컵

헤비 크림 혹은 하프-앤-하프 3컵

밀린 세리 6테이블스푼

소금과 후추

스리라차 소스

오이스터 크래커

조리법

다진 조개에서 즙을 내어 시판용 조개 주스와 합쳐 3컵을 만든다. 수프용 냄비에 중간불로 약 8분간 베이컨을 바삭하게 굽는다. 양파를 추가하여 투명해질때까지 약 5분에서 7분가량 볶는다. 밀가루를 추가하여 저열에서 2-3분간 볶는다. 이때 나무로 된 주걱을 사용한다. 조개 육수를 넣고 중간중간 저으며 5분간 끓인다. 헤비크림 정도의 묽기가 되어야 하고 너무 뽀뽀할 경우 조개 주스를 추가한다. 월계수 잎과 타임을 추가한다. 감자와 파를 넣고 부드러워질까지 15분간 끓인다. 동시에 조개와 크림을 소스팬에 넣고 조개가 익을때까지 5-8분가량 조리한다. 감자가 다 익으면 조개와 크림을 기존의 육수에 추가한 후 1-2분가량 끓인다. 세리를 넣고 소금, 후추, 스리라차 소스로 간한다. 한편에 크래커를 곁들여 낸다.

sun@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u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	--	--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총 13개 Live방송중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MICROBLADING & PERMANENT MAKEUP

반영구 메이크업
 자연눈썹
 아이라인
 입술

MA Licensed permanent cosmetics Artist

Jin 978.935.1395
 5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보스톤 마티 월시 시장은 한 지역 방송에 출연해 만약 보스톤 주민들이 계속 눈치운 자리 확보를 두고 싸운다면 자리확보 표시(Space Saver) 룰을 폐지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월시시장, 계속 싸우면 눈치운 자리 확보 규정 폐지

눈치우면 48시간 동안 그자리 확보 가능 규정
사우스엔드에는 이 규정 적용 안돼
월시 시장, 눈을 치워도 주차 공간은 시 소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눈폭탄이 주차 전쟁이란 골머리를 안겨주었다. 결국 보스톤 마티 월시 시장은 한 지역 방송에 출연해 만약 보스톤 주민들이 계속 눈치운 자리 확보를 두고 싸운다면 자리확보 표시(Space Saver) 룰을 폐지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는 직후 트윗을 통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눈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면 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열심히 삽질을 통해 파묻힌 차를 꺼내고 주위 주차 공간을 치워 놓는다. 문제는 일부 양측자들이 이 공간에 자신의 차를 꼭 집어 넣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스톤시는 일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극히 부족한 사우스 엔드 지역을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자신이 치운 주차 공간에 의자, 가구 등 표시를 두어 자신의 주차공간으로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항상 이 스페이스 세이버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치워진 주차 공간을 찾는 사람과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다툼은 때로 도를 넘어 가기도 한다.

지난 4일 대형 폭설이 보스톤을 강타한 이후 월시 시장은 주차공간의 눈을 삽으로 치우고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은 48시간 동안 그 자리를 자신이 스페이스 세이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이언 지역에서 차를 치우고 물

건을 놓아둔 사람은 “만약 이 물건을 치우고 주차하는 경우 유리창을 깨뜨리겠다”는 경고장을 붙였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는 주차 공간 확보를 두고 일어나는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월시 시장은 이 같은 사건이 자주 일어나자 채널 5인 WCVB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주차 공간은 결코 개인의 공간이 아니다. 물론 눈을 치우는 수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 주차공간은 시의 소유다. 만약 주민들이 서로에게 헐박하고 계속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시장은 결코 즉각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누구라도 위협을 받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hsb@bostonkorea.com



파워볼 잭팟 복권이 판매된 가게 모습

560M 달러를 가져갈 행운아는 어디에

파워볼 잭팟 당첨자 아직 나타나지 않아
뉴햄프셔 메리맥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6일 추첨된 파워볼 복권의 잭팟 당첨자는 뉴햄프셔의 작은 타운 메리맥에 위치한 가게에서 복권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잭팟 당첨 금액이 무려 5억 6천만 달러(\$560 million)에 달하는 복권의 주인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파워볼 당첨 복권이 판매된 곳이 리즈 페리 마켓이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 이곳에는 복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복권 판매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리즈 페리 마켓의 점원인 샘 사파에 따르면 복권을 구입하는 손님의 80% 이상이 메리맥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가능한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9일 오전까지 복권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파는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당신이 그 행운의 주인공인가요?” 라고 웃으며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 사파는 당첨 복권을 판매한 대

가로 7만 5천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5억 6천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에 당첨된 사람은 일시불로 받을 경우 세금전 금액으로 3억 5천 8백 50만 달러(\$358.5 million)를 받게 된다. 만약 3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전 금액으로 첫 해에 8백만 달러, 그리고 마지막 해에 3천만 달러를 받게 된다.

뉴햄프셔 로터리 위원회의 모라 맥캔 대변인은 “지금 우리는 (복권 당첨자들)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맥캔 대변인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는 복권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해당 복권을 콩코드에 위치한 로터리 위원회 본사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뉴햄프셔 주법에 따라 복권 당첨자의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만약 당첨자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일 경우에도 단체의 이름이 공개된다.

파워볼 복권 잭팟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천 2백 2십만 분의 1이다.

jsi@bostonkorea.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매사추세츠는 여전히 찰리 베이커를 좋아해

최근 설문 조사 베이커 주지사 지지율 높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갈수록 나빠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찰리 베이커 주지사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영방송 WBUR에서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에 등록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66%의 응답자가 베이커 주지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17%의 응답자만이 베이커 주지사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74%의 응답자는 베이커 주지사가 현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견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민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반면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64%였다. 응답자의 1/3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답했으며, 62%는 현재 대통령직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

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인 트위터에 대해서도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13%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80%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이커 주지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 2년여 동안 7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커 주지사의 재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설문 조사에서 49%의 응답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국가에 나쁜 일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59%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jsi@bostonkorea.com



베이커 주지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 2년여 동안 70%를 넘나들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매사추세츠에서 독감 환자 급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매사추세츠 전역에 걸쳐 독감, 혹은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독감에 걸리면 100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을 하게 되고 목이 부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은 매사추세츠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공통된 현상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외에 45개 주에서 독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2017-18 시즌 동안 독

감으로 판정된 환자는 400명 이상이다. 반면 2016-17 시즌에는 독감 환자가 138명이었다.

지역 별로는 에섹스 카운티를 비롯한 매사추세츠 동북부 지역에서 4.66%의 독감 증상이 보고되어 독감이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매사추세츠 중부 지역에서는 0.88%의 독감 증상이 보고되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며 지금이라도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가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SEOUL TOPOKKI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트럼프, 北·이민 등 왜 말바꿨나 셈법 깔린 판흔들기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묘하게 '말 바꾸기'에 나섰다. 북한·이민·환경 등 민감한 부분에서 과거의 언행을 뒤집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변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파리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해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이었다.

북한의 경우 압박·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까지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특정해 "내 핵 단추가 더 크고 강력하다"는 노골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상황 하에' 북미 대화를 갖는 것에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5일에는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김 위원장과 통화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나는 늘 대화를 믿어 왔다"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민 부문에선 DACA를 놓고 입장을 바꿨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시절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의 추방을 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제도다.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폐지를 선언하면서 드리머 80만명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3월5일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드리머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 공화당·민주당 양원의원들을 초청해 드리머 80만명의 추방을 막아야 한다고 돌연 강조했다. 이 모습은 이례적으로 현장 취재를 허락한 백악관의 뜻에 따라 전파를 탔다. 그러나 이를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안과 바꾸자는 '빅딜' 제안이었다.

파리기후협약 발언도 반복했다. 지난해 6월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그것은 내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협약"이라면서도 "그들이 나쁜 거래를 했으므로 서명된 협약에는 문제가 있다"는 모순된 메시지를 내놨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부정'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간선거 등을 염두한 셈법이 명백하게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 흔들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DACA와 관련한 태세 전환은 일부 외신으로부터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 추방을 막는 대가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확보와 이민 개혁을 제시해서다. 이민 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혁에는 가족 단위 이민을 장려하는 연쇄 이민(chain migration) 및 비자 추첨제(visa lottery)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그가 대선 공약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 및 마약 유입에 강경하다는 것을 지지층에게 확인시킨 것이다. A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고 해석했다.

대안우파 매체인 브레이트바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인정한 점이 보수 진영의 심기를 일부 건드렸다면 "대통령의 정신이상"에 대한 추측이 끝날 것이며, 민주당의 중간선거 초기 노력에 불을 붙이는 탄핵 시도 또한 저해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대북 발언 배경 중 하나로 남북간 해빙 무드의 공(功)을 차지하려는 계산이 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올림픽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oho0901@news1.kr

불안한 이민자 삶의 기반까지 다 쫓는 트럼프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8일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1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도입했던 임시보호지위(TPS)로 미국에 들어온 중미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TPS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해당국 국민들을 수용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범죄나 문화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아 온 이민자들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것임은 틀림없다.

통상 12~18개월짜리 TPS를 받는데 갱신되면 더 지낼 수 있어 엘살바도르인들의 경우 17년이나 살아왔다.

그동안 직업을 구하고 삶의 기반을 닦았던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락을 이루고 사는 장소도 곳곳에 있다. 또 이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19만 30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부모와는 달리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어 가족이 뿔뿔이 해체될 위기도 우려된다. 엘살바도르 정부도 갱신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001년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TPS를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에게 부여해 왔지만 17년 동안 과거의 상황이 회복됐다"며 더 이상 인도주의적 이민 정책이었던 TPS 부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인들은 지난 2001년 1월 강진을 연달아 겪은 뒤 대거 미국으로 몰려 왔다. 20만명에 달하는 이들은 미국에 남을 합법적인 이유를 만들지 못하는 한 오는 2019년 9월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미국은 같은 자격으로 들어온 니카라과인 에겐 작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아이티인, 수단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며 TPS를 연장해주지 않았다. 조만간 네팔과 소말리아, 예멘, 온두라스 등에 대한 입장도 정리될텐데 전례를 본다면 TPS를 갱신해주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자들에게 임시로 거주권을 주었던 것인만큼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들이 양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생각할 때 적당치 못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엘살바도르인의 경우 매년 수십억달러씩을 고국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이것이 엘살바도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엘살바도르가 이만한 인력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은 2001년 이전에도 재난을 겪은 외국인들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 1990년대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기승으로 힘에 부친 적도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인들을 받아들였고 내전을 겪던 보스니아인들도 수용했다.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히 "유대교와 기독교에선 구원의 역사가 난민 역사에 있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914@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상원은행위, 내달 규제당국과 비트코인 관련 청문회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가 금융 당국과 비트코인 관련 청문회를 다음달 개최할 것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로이터에 말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가하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원은행위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르로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CE)의 제이 클레이튼 의장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만9000달러를 넘기며 거품 우려와 경고가 넘쳐나고 있다. 월가 뱅커들과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의 적법성과 금융 상품으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의 돈이라는 낙관론에 막

대한 베팅을 걸고 있다.

SEC와 CFTC 역시 막대한 변동성의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CFTC는 지난달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달 해당 선물상품

을 승인한 절차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에서 5개 자산관리업체들은 비트코인 선물에 기반한 ETF 상품 신청을 철회했다. SEC가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유동성에 대해 지적인 영향이다.

kirimi99@news1.kr



월마트, 최저시급 11달러, 감세혜택 직원들에게

(로이터=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11일 세계 개혁에 따른 혜택을 시간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적용되는 시간당 임금은 11달러로 인상된다.

월마트는 이 같은 시급 조정이 다음 달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이 밖에도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최대 1000달러에 달하는 상여금을 한 차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임금 상승과 상여금의 혜택을 받는 직원은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마트의 이 같은 발표에 앞서 AT&T와 웰스파고, 보잉도 세계 개혁에 따른 혜택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의회는 지난달 법인세를 종전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법인세 감면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JP모건 다이먼, 비트코인을 왜 사기라 했을까..후회한다

그래도 비트코인에는 일절 관심 없다

(로이터/BUZZ=뉴스1) 민선희 기자 = 9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면서도 '여전히 그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다이먼 회장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월 다이먼 회장은 뉴욕 은행 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JP모건 트레이더들이 있다면 해고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가상화폐 선물의 유동성 및 밸류에이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지난 12개월 간 20배가량 뛰었다.

minssun@news1.kr

고프로, 지난해 4Q 매출 예상치 하향..250명 감원

(로이터=뉴스1) 김정하 기자 = 액션 카메라 업체 고프로(GoPro)가 지난해 4분기 매출 실적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발표했다. 직원 수도 현재의 1254명에서 1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프로는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품 '히어로 6' (Hero6) 카메라의 가격을 499달러에서 399달러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고프로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억4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수정해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예상치인 4억7000만달러(± 1000만

달러)를 밑돈다.

지난주 기술산업 부문 전문 온라인 출판사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고프로는 카르마 드론을 제작하는 현재의 항공부서에서 직원을 200~300명 감원할 계획이다.

acenes@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BLISS IMAGE SALON & SPA

반 영구 확장 전문
(Now Offering Permanent Makeup)

- 엠보 자연 눈썹(Microblading)
- 자연 눈썹(Eyebrows)
- 아이라이너(Eye Liners)
- 입술(Lips)
- 헤어라인(Hair Lined)
- 속눈썹 연장(Eyelash Extension)
- 피부(사마귀, 점 제거), 머리, 왁스

Service provided by a licensed artist
CHAE (MA & NY Licensed)

By Appointment Only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617.323.0023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성난 여론에 화들짝,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철회

박상기 "부처간 이견 없다"→법무부 "모든 수단 열어놔" 청와대 "박 장관 발언, 확정된 사안 아니다" 긴급 진화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무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가 반발이 거세져 자рна절만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폐쇄하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폐

쇄에 대해 문재인정부 내각의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박 장관의 발표가 전해진 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급락했고, 청와대 홈페이지는 규제반대를 청원하는 투자자들로 들끓었다. 일부 과격한 투자자는 박 장관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천명하던 시각,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암호화폐와 관련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

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터진 박 장관의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김동연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와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오후 5시22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 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러자 법무부는 법조출입기자단에게 오후 6시15분쯤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누그러진 입장을

공개했다.

이어 "법무부는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보름, 새 3차례 반복...불신 키운 교육부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침을 놓고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 발표 후 불과 보름 새 '금지→미확정→금지→유예'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오락가락 행정에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알렸다. 유아 교육과정 혁신 내용을 설명하며 "앞으로 영어 등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교과목과 같이 유아 발달단계에서 부적합한 내용을 제외한다(어린이집 포함)"고 밝혔다. 교육부

는 초등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사실상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어수업 퇴출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곧바로 반발했다. 청와대 청원도 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튿날 설명자료를 내고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에서의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뺐다.

하지만 일주일 뒤 교육부가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나 '어린이집 방

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재차 반발했다. 과장이 커지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며 정책 시행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포함해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올해 3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한 교육부는 올 9월 적용, 내년 3월 적용 등 2가지 선택지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9월 적용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아 아예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쯤 적용시기와 이번 조치로 우려되는 영어 사교육 확대에 대한 보완책 등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우왕좌왕 행보를 두고 현장에서는 비판의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고 불신을 키우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난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번 사례를 거울로 삼고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jh7@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관심한 준비하는 성인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점심 뷔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습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다스 전격 압수수색...검찰 추가 비자금 의혹도 밝혀낼까

새 자금흐름 포착...계좌추적 인력 2배로 증원 국세청 세무조사도...전방위로 날아드는 칼날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 다스수사팀이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 본사를 상대로 11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칼날이 120억원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정호영 전 BBK 특검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면서 수사팀 인력을 2배로 증원하고 120억원 이외에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월26일 수사팀이 출범한지 16일만의 강제수사 착수다.

다스 수사팀은 현재 다스의 120억원 추적팀과 정호영 전 특검 특수직무유기 수사팀의 2개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정 전 특검의 수사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

라고 주장한 전직 다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다스 120억원 추적팀은 자료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자금흐름을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계좌추적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요청해 8일 검사 2명을 포함해 계좌추적을 위한 수사인력 10명도 추가로 수사팀에 투입했다.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의혹이 있다는 다스 관계자들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계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추가로 추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수사 확대 가능성도 예고했다.

수사팀이 추가 계좌추적에 이어 이날 다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120억원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 추가 비자금 의혹까지 수사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 전 특검의 경우 2008년 당시 법원의 2차례 영장기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스측의 동의 아래 자료를 확보했다. 다스 수사팀이 정 전 특검은 하지 못했던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도 지난 4일 다스 본사에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수상한 자금이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로 횡령 등 정황이 드러나면 '문제의' 공소시효도 늘어날 수 있다.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은 이상은 다스 대표와 '성명불상 실소유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원이 다스 법인계좌로 환수된 '2008년 3월'을 범행시점으로 보아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공소시효가 늘어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정된 것은 없지만 (횡령 정황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 전 특검과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특검법상 한정된 짧은 수사기간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발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이 11일 오전 경주시 외동읍 다스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견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사팀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9일 "수사 당시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와 세광공업 경리팀이었던 이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보관하던 계좌일체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방법에 따라 특검이 발견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특검이 적법하게 최선을 다해 수사해 밝힌 금액은 12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파견검사로 다스 수사를 담

당했던 조재빈 대검 검찰연구관은 10일 "(특검팀은) 120억원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120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바뀌어 다스의 내부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고 하니 제가 10년 전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news1.kr

다스 본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서울=뉴스1) 최은지, 이원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다스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스 본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12년 이광범 내국특검팀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다스 본사에만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디지털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수사 당시 다스 경리직원 조씨의 횡령액은 110억원 이었고 5년간 이자 15억원 상당이 증가해 총 125억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씨와 이 돈을 관리한 다스의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팀 이모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5억원으로 확인돼 특검수사 당시 잔액은 120억원 뿐이었다는 것이다.

정 전 특검은 다스의 경리팀과 결제라인인 조씨, 채동영 전 경리팀장, 권승호 전 전무, 김성우 전 사장의 공모 여부와 이씨가 120억원을 보관하는 과정에 개입한 금융기관 직원 다수, 다스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도 전부 소환 조사했으나 조씨의 횡령에 대한 공범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스 수사팀은 120억원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정 전 특검검사팀의 수사자료를 분석하던 중 새로운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계좌추적을 진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정호영 전 특검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강제수사인 만큼 검찰은 다스의 설립경위나 운영실태, 회계흐름, 결제 상황 등 내부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최근 다스 수사팀은 수사속도를 내기 위해 대검찰청에 요청해 검사 2명을 포함해 수사팀 인원을 2배로 증원하면서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120억원 의혹의 핵심에 있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와 조력자 이모씨 등 핵심인물을 소환해 특검의 수사대로 개인 횡령이었던지, 뒷선의 지시 여부는 없었는지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소명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다스의 동의 하에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2012년 이광범 내국특검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과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ilverpaper@news1.kr

다스 비자금, 핵심인물 소환 임박

(서울=뉴스1) 최은지, 이원준 기자 = 출범 14일 째를 맞이하는 다스 수사팀이 '준비운동'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비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스 횡령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26일 수사팀을 발족하고 그동안 참여연대 등 고발인 조사와 전직 경리팀 직원 등을 참고인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정호영 특별검사 수사자료 분석에 주력했다.

수사팀은 자료가 방대한 만큼 자료 분석에도 시간이 빠듯한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위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일각에선 정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약 45일 남은 가운데 최근 국세청도 '국세청 내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을 투입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스 수사팀은 조만간 '횡령 의혹'의 핵심인 경리직원과 이 돈을 관리한 조력자, 다스 자금 담당 결제 라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경리직원인 조모씨는 2003년 80억원을 다스 당시 협력업체인 세광공업의 경리과장 이모씨에게 돈을 관리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80억원이 120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투자 수익이 지나치게 많아 투자가 아닌 의심스러운 자금이 추가됐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총 17명 명의 43개 계좌의 약 120억원이 2008년 초 모두 다스의 계

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명 명의는 이씨의 친인척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호영 특검팀은 120억원의 존재를 알았으나 조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내면서 이 돈은 2008년 2월 다스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됐다.

최근 이 돈을 관리했던 이씨는 120억 가운데 자신의 개인 돈이 있다며 돌려달라고 하자 특검 수사 종료 후 조씨가 자필확인서를 건넸다고 밝혔다. 이 자필확인서에는 당시 자금의 흐름을 이상은 다스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0억원의 자금을 실제로 조성한 조씨와 이씨를 소환해 횡령과 자금이 불어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상은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들어있는 자필확인서에 대해서도 확인할 지도 주목된다.

자금 결제라인에 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이사 역시 주요 수사 대상자다.

김 전 사장은 자금 지출에 필요한 회사의 인감도장을 관리했다. 김 전 사장은 당시 모든 다스의 자금 결제를 담당했으며 인감도장을 금고에 보관해왔다고 알려졌다. 조씨가 80억원이라는 회사의 자금을 김 전 사장의 승인 없이 빼돌릴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기도 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팀 관계자들도 접촉하며 수사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news1.kr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AN. 12 - JAN. 18, 2018

CHEESY PORK CUTLET PORK CUTLET AND CHEESE. MOVE OVER VEAL PARMESAN. THIS DISH WILL HAVE YOU COMING BACK FOR MORE!

쭈욱 늘어나는 쫄깃한 치즈와 바삭한 돈까스의 만남~ 언제 먹어도 맛있는 치즈 돈까스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lb.</p>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lb.</p>	<p>Ginger 생강 \$1.29 lb.</p>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4.99 box</p>	<p>Nagaimo 일본 마 \$4.99 lb.</p>
<p>RAW NATURE Tofu 자연담은 두부 All Varieties - 14oz/pkg \$0.99</p>	<p>Gabo 우엉 \$1.99 lb.</p>	<p>Packed Garlic 팩 마늘 5cmt/pkg 2\$3 pkg/for</p>	<p>Kabocha 단호박 \$0.88 lb.</p>	<p>Lotus Root 연근 \$1.99 lb.</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Ox Tail 생소꼬리 \$10.99 lb.</p>	<p>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lb.</p>
<p>Pork Whole Tenderloin 돼지안심 \$3.99 lb.</p>	<p>Whole Chicken 통닭 \$1.49 lb.</p>
<p>Beef Leg Bones 시골 \$1.49 lb.</p>	<p>Marinated Sliced Beef Ribeye Roll Bulgog 양념 소불고기 \$6.99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TONGTONGBAY Dried Jiri Anchovy 통통배 저리멸치 8oz/pkg \$8.99</p>	<p>TONGTONGBAY Octopus Sliced 통통배 절단낙지 1.5 lb./pkg. \$8.49</p>
<p>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pkg. \$3.99</p>	<p>Cooked Conch Meat 조리새우 \$9.99 lb.</p>
<p>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 \$6.99 lb.</p>	<p>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6.99 lb.</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AGAWA Premium Short Grain Rice 가가야미 쌀 20 lb. \$26.99</p>	<p>KWANGHININONGHUL Green Tea Seasoned Liver 관련 농협 특자긴 선물세트 Original - 3.7oz. x 10ea./box \$9.99</p>
<p>SHIRAKU 100% Pure Sesame Oil 시라카구 참기름 68.8 oz. \$9.99</p>	<p>HWOREUM Canned Bar Top Shell 해우름 공생이 통조림 14.1oz. \$4.99</p>
<p>NIS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NISHIMOTO 세게 쌀 15 lb. \$9.99</p>	<p>SAMYANG Spicy Ramen 삼양라면 4.2oz. x 20ea./box \$12.99</p>
<p>MARUCHAN'S Nama Yak-soba 마루찬 야키소바 16.9oz. \$1.99</p>	<p>BONELLI Pure Grapeseed Oil BONELLI 포도씨유 318oz. \$5.99</p>
<p>POCKY POKY 글리코 포키 9.9oz. 2\$7 Chocolate 5c Strawberry 4.2oz.</p>	<p>SANJANG Curry SSB 콩분가루 All varieties 8.4oz. \$2.99</p>
<p>Black Bean & Black Sesame Seed Black Cornal 향초준 생강콩 & 생면매 선식 12oz. \$14.99</p>	<p>SANJANG Rice Cake 상향 떡국떡(생면매) 3lb. \$4.99</p>
<p>GLICO Pocky 글리코 포키 9.9oz. 2\$7 Chocolate 5c Strawberry 4.2oz.</p>	<p>KOREAN Traditional Plate 지게 구절편 6.5oz. \$9.99</p>
<p>GLICO Pocky 글리코 포키 9.9oz. 2\$7 Chocolate 5c Strawberry 4.2oz.</p>	<p>KOTC Bamboo Steamer 고도 대나무 찜기 24cm dia. \$9.99</p>

JINGA EST. 1982

— 진가 반찬 —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도매반찬을 드셔보세요

<p>HAICREAM Canned Boiled Mackerel Pilo 해우름 콩치 통조림 14.1oz. \$1.99</p>	<p>CHEONG JUNG ONE Dried Seaweed 청정원 삼해안산 청정미떡 7.0oz. \$5.99</p>
<p>SENSUL Pure Apple Vinegar 생식 자연발효 사과 식초 37.05oz. \$4.99</p>	<p>MELAMINE Tray 멜라민 아이보리 꽃매 경반 21.47x 32cm/ery/10ea - 15 \$4.49</p>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goo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goo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VT BURLINGTON STORE: 43 W. Middlebury, Burlington, MA 01803 / TEL: 781-621-1670 / STORE HOURS: Sun - Thu: 1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브리핑

(판문점=뉴스1)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가졌다. 2년만에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조장관은 "산적인 남북관계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갈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 고 말했다.

조장관의 브리핑 전문과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오늘 남북은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중단됐던 남북 대화가 실로 오랜만에 재개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담이 우리측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열린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 입어 향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과 북은 이번 회담이 남북 관계를 복원, 발전 시켜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상호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남북이 이런 태도로 회담에 임하면서 회담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북은 북측의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포함해 향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3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회담을 통해 북측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를 확정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고위급 인사 등이 포함된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남과 북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간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장기간 단절되면서 긴장과 불신이 조성됐지만, 오늘 대화로 산적인 남북 관계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단초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당국 회담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거의 2년 만에 서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고 군사 회담 개최에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외에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입장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등 조속한 시일 내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 남북 당국이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북측을 평화 정착의 상대방으로 인정, 존중하며 다양한 분야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상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담으로 남북 관계의 첫 발을 뒀습니다. 남북 관계가 중단된 기간 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남북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개선을 이뤄나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회담을 지켜보며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취재단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 파견 규모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있는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실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대체로 개최식에 맞춰 오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시기 또한 실무 협의를 통해 협의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예술단의 규모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평창 현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1차 생각을 전달한 것이고, 우리도 과거 전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실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9일 판문점 남북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무협의를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측에서 북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지.

▶북측 선수단을 포함해서 북에서 오는 분들에게 필요한 편의를 남북 관례와 국제사회 관례에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편의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차원이고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차원도 있고, 남북간 관례에 따라 제공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산상봉 문제는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북측도 상당 부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북측 나름의 사정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는 상황입니다. 일단 2항 합의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여러 분야의 접촉과 왕래, 교류협력에 이산가족 문제도 상정하며 구체적인 표현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리선권 대표가 비핵화 등에 예민하게 반응 했는데.

▶비핵화 관련해서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우리 대표단의 대변인 역할을 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가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언급한 것을 (취재진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고 관련 북측 입장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언급을 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서해 군 통신선 개통 관련해서도 북측은 3일 개통을 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에서는 매일 실험 통화를 시도하는데 북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시도한 결과 연락이 취해진 것입니다. 3일 북측에서 통신선이 개통이 됐다고 발표할 때 판문점 연락채널이 개통이 됐다고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데 아마 군 통신선 개통이 그동안 확인이 안된 것은 기술적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군 통신선끼리 연락하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으로서는 3일날 개통은 했는데 남측이 오늘 개통이 된 것처럼 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 관련해서는 얘기가 오갔나.

▶우리측의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훈련 연기'를 북측도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지라던가 여러가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회담 중에 우리에게 설명한 바는 있습니다.

-여러가지라는 것은 대북제재나 개성공단 중단 문제도 들어가지는지.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 했고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남과 북이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에 따라 (북측이)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했고,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북측이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측면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측도 나름의 입장을 전했는데, 하나 하나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해 군 통신선 이야기가 나온 경우는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긴장 완화라던가 군사당국 회담 등을 이야기하면서 군 통신선을 다시 개통하는 문제가 포함돼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북한이 중점을 준 대목이 무엇인지.

▶북측도 역시 오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을 잡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전체 토의가 평창과 패럴림픽에 할애했습니다.

-모두 발언 때는 남북이 화기에 애 했는데.

▶북측은 직접 언론이 있던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돌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직접 밝히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회담 도중에 북한이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예견된 돌발 발언이라고 예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담의 연속성과 관련해 지금 평창올림픽이 주요 의제인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일단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남북한 간 오랜 단절 끝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군사당국 회담 합의가 됐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군 통신선 개통과 관련해 논의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기본적으로 7.17 제의처럼 이산가족이나 군사 긴장 완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북측 선수단의 참여 관련해서도 종목 별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와 북측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 해서 이를 토대로 실무 협의로 조율할 것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 참여는 남북 뿐 아니라 IOC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OC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측의 공개회의 언급은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제의를 했었던 것에 대해 크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북측은 모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뒤 회담의 과정에서 따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도문을 발표한 것인지. 북측의 입장이 많이 담긴 듯한데.

▶회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공동보도문이거나 합의문으로 발표합니다. 과거 장관급 회담에서 이런 정도 내용은 공동 보도문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두고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과거 남북 합의에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북측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사례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강조하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북측의 표현이며, 북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회담의 소회와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냐는 마음으로 회담에서 출발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회담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북이 공동 보도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들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뒤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국제와 협력하면서, 북한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회담하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Business Listing



편의점 매매

캠브리지 변화한 상권 및 아파트근처에 위치, 연매상 \$280,000 이상, 숙련된 직원들로 쉬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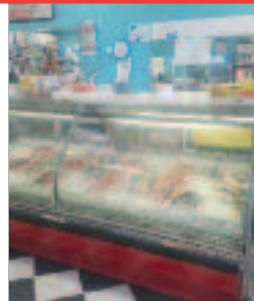
Asking \$85,000



세탁소 매매

보스톤 남쪽에 위치한 Drop-off 세탁소, 좋은 동네 변화한 길에 위치, 연매상 \$100,000 이상.

Asking \$50,000



Fish Market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000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 To-go 메뉴로 Extra 수입, 소비자 리뷰가 매우 좋은 가게, 넓은 주차공간

Asking \$210,000

NEW LISTING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연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년 매상 \$200,000 + 안정적인 고객층과 새로운 기계들

Asking \$230,000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세탁소

보스톤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 연매상 \$150,000 + Wholesale 좋은 동네 무경쟁 안정적인 수입, 오프라인 가능

Asking \$195,000

LISTINGS

1.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2.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톤 북부 인근, Asking \$150,000
 3.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보스톤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NEW Full Plant 세탁소**
보스톤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20,000



세탁소

Brookline 좋은 위치, 연매상 \$220,000 이상, 보장된 수입, 1년된 Hydro Carbon 기계

Asking \$23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Wet Cleaning 전문, Mall 안에 위치, 안정적 수입, 탄탄한 고객층, 약 1,700 Sq.Ft, 렌트 \$4,800, NNN 포함, 년 매상 \$300,000

Asking \$265,000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73 Carriage House Path
Ashland, MA
Asking: \$415,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Under Agreement: Condominium
26 Broad St., #101
Marlborough, MA
Asking: \$340,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6 Abbey Road - Unit 17
Sherborn, MA
Asking: \$3,750/mo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26 Glendale St.
Maynard, MA
Asking price: \$379,900
Listing Agent: Nancy Marcis



Just listed: Condominium
120 Parker St. - Unit 26
Acton, MA
Asking price: \$189,900
Listing Agent: Laura Rakausk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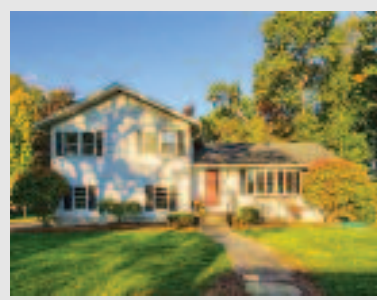
Just listed: Single Family
90 Old Stow Road,
Concord, MA
Asking price: \$569,000
Listing Agent: Carol Lenox



Just listed: Single Family
215 Whitcomb Avenue
Littleton, MA
Asking price: \$575,000
Listing Agent: Johanna Parlon



Just listed: Town House/Condo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Asking price: \$284,9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Single Family
86 Stuart Avenue
Leominster, MA
Asking price: \$349,900
Listing Agent: Allen Quinn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Teresa Vitelli
781.619.047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Bill Busiek
781.820.1569



M. Keith Peifer
304.963.2923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 질환과 오인하기 쉬운 '충수염'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맹장염으로 잘 알려진 충수염에 대해서 휴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흔히들 맹장염으로 알고 있는 충수염은 외과에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급성충수염으로 수술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15% 정도는 사는 동안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통계상 평생유병률(사람이 사는 동안 발생할 확률)은 8~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급성충수염을 흔히들 맹장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식 명칭이 아니다. 대장과 소장이 연결된 부위아래쪽에 주머니처럼 존재하는 대장의 일부를 '맹장' 이라고 부르는데, 충수염과 맹장염이라는 명칭에 혼동이 생긴 이유가 여기 있다. 바로 이 맹장 끝에 6~9cm 길이로 달린 충수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충수염이다.

급성충수염은 처음 발생한 후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을 보이게 된다. 비천공성(충수 내부에 감염이 머물러 있는 경우) → 단순천공성(염증이 심해져서 세균과 염증세포가 충수 밖으로 새어나온 경우) → 천공과 함께 주위조직에 염증을 유발한 경우(국소 복막염) → 천공으로 인한 농양(고름주머니)이 주변에 형성된 경우(충수주위농양), 또는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배안에 골고루 염증이 퍼진 경우). 증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위함해 질 수 있다.

충수염 ... 치료 시기 놓치면 복막염 진행

그렇다면 충수염은 왜 발생하는 걸까?

기본적인 원리는 '막힘' 이다. 어떤 이유에서 맹장과 충수의 연결부위가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충수로부터 대장으로 향하는 정상적인 장운동이 차단되고, 충수 내부는 고인 물이 썩듯이 세균이 과다증식되면서 염증성분으로 채워지게 되고 결국 독성물질을 분비하게 된다.

급성충수염은 10~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20대 초반에 가장 흔하다. 젊은 연령층에서 충수염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막힘 현상이 더 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0~20대 연령층은 림프저류, 림프부종, 림프절염 등이 잘 발생하는 연령대이므로 충수주변의 림프선에 문제가 발생하면 충수와 맹장 연결부위 주변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그 결과 '막힘' 현상이 생기기 쉽다. 그 외에 막힘 현상의 원인으로는 흔히 충수석이라고 부르는 장 내부의 이물질에 의한 경우, 대장암에 의한 경우, 또는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발병 초기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면서 메스꺼리는 증상이 먼저 시작될 후 배꼽 위나 배꼽 주변부에 통증이 나타난다. 이 때 1~2회 정도 구토를 하기도 하며 충수가 위치한 오른쪽 아랫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단지 손으로 눌렀을 때 미세한 통증만 느낀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선불리 집에 있는 진통제나 장염 치료제를 복용하지 말고 병·의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게 우선이다.

급성충수염의 원칙적인 치료 방법은 충수돌기를 잘라내는 충수 절제술이다. 최근에는 개복수술보

다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 후 흉터와 부작용이 거의 없고, 통증이 적어 이를 정도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충수가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됐거나 복강 내에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한다. 오른쪽 아랫배에 가로로 작은 절개창을 내고 수술을 하는데, 고름집이 형성됐거나 복막염인 경우에는 더 크게 절개하거나 배꼽 오른쪽에 세로로 길게 절개하는 경우도 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오직 손으로만 교정하는 정통 카이로 프랙터, Dr. Gonstead Chiropractic을 검색해 보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목(M-T) : 8am-8pm(야간진료가능) 금,토,일(Fri, Sat, Sun) : Closed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LISTINGS



새 바람 Waltham, 6 B/R, 3 Bath Two Family House, 좋은 투자용 주택

ASKING \$765,000



Sing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격 4 B/R, 2 1/2 Bath

ASKING \$589,000
Rent도 가능: 월 \$2,800



Boston The Fenway /Back Bay 1 Bedroom/ 1Bath Condominium

ASKING \$668,000

LISTINGS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95,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49,000



보스턴 남부지역 성황리 영업중 풀 풀렌트 세탁소
ASKING \$160,000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5 bedroom/ 4 Bath

ASKING \$1,495,000



로드 아일랜드 성업중인 스시 식당 주인 리타이어

ASKING \$280,000



Boston동북부 바닷가 부촌에 위치한 이태리 커피 및 샌드위치 Cafe & Bakery Owner 이주, 좋은 가격

ASKING \$45,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건국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요금정보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근로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협회	781-424-5269
FH인정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스프링필드교회협의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자주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미용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789-9330
백영주미용실	978-239-0141
송기백미용실	781-510-9924
송현미미용실	617-835-7664
순옥원미용실	508-737-863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엘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미용실(EXT. 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드)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중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선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

PR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포스페이

지난 한해동안 성원해 주신
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 무술년 한해에도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 절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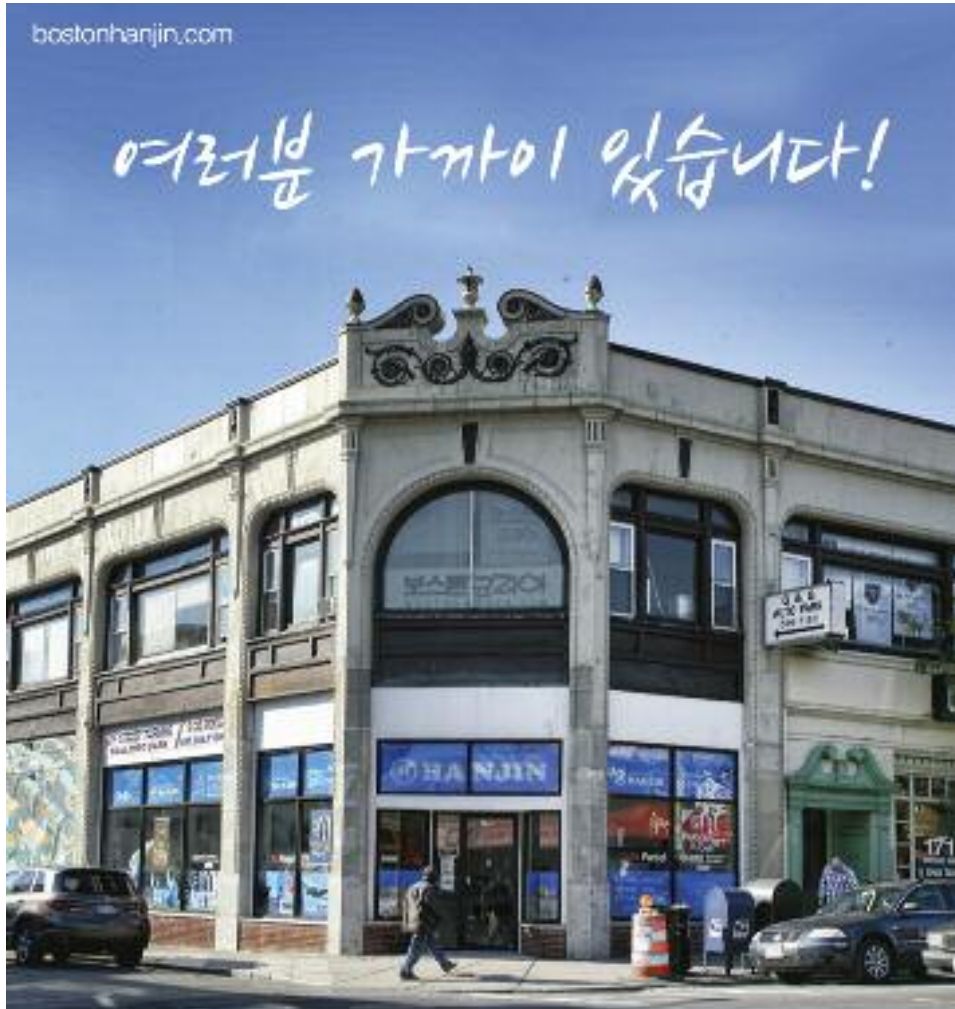
- 본촌: 20% 절약
- 돼지공: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가족에게 건네주는 밝고 고운 말, 그 한마디의 힘'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만사형통한 평안한 한 해를 염원할 것이다. 행운의 한 해를 보장하는 비법이 있다. 말씨가 밝고, 고우면 된다. '가혹한 말 한마디가 깊은 한을 남기고, 냉정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근원이 되고,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예의 없는 말 한마디가 사랑을 잃게 한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하고, 재치있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리게 한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스런 말 한마디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익명 저자의 말처럼 말씨에 따라 우리의 생은 좋은 복을 오게하기도 하고 화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말을 잘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더 잘 안 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말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수 많은 책을 가깝게 접할 수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말 잘해야 성공한다.', '마음을 흠치는 대화법', '말 잘하는 사람들의 3가지 비법', '소통의 기술', '흥하는 말투 망하는 말씨', '세상을 이기는 말의 힘', '말 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 책들을 읽으며 대화법을 바꾸어야 성공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마음만 먹게되지 정작 실천이 어렵다. 그 이유는 말씨와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불편하면 고운 말이 나오기가 힘이 든다. 머리로 익히는 화법의 '기술'이 아프고 꼬인 마음을 치유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많은 책들의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운 말을 잘하는 법을 알려주기보다 성공을 위한 화법에 겨냥되어있어 못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세션 중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부드럽고, 세련되고,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으로 말하려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종일 일터에서 스트레스 참아가며 고분고분 말을 하느라 기진맥진

했는데 집에 까지 와서 가족에게 말씨를 바꾸려 왜 노력을 해야 하나고 찰리의 아버지는 따지듯이 말했다. 찰리는 학교에서 같은 반 클라스메이트를 때려서 3일의 정학을 받았다. 찰리의 부모는 조용하고 고분고분 한 찰리가 학교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테라피 요청이 들어왔다. 찰리는 세션 중 머리카락을 뽑으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했음을 토로했다. 약간의 원형탈모가 보였고, 여태껏 자신의 헤어 스타일로 감추어 왔음을 알려주었다. 다행스럽게도 찰리는 스트레스를 머리카락 뽑아 해결하는 '트리코틸로 매니아(Trichotillomania)'의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찰리의 스트레스로 탈모현상이 왔다고 믿고 있었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찰리의 아버지는 과묵했고 근엄했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자신이 가장이 되어 힘들게 형제들을 돌 보아야 했다. 그러다보니 결혼이 늦어졌고 친지의 소개로 찰리의 어머니를 만나 3개월만에 30 중반의 나이로 결혼을 했다. 찰리의 어머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공부를 잘 못해 항상 주눅이 들어 자라왔다. 결혼 후 찰리 어머니의 부모는 큰 지참금을 주며 집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결혼을 한 후 찰리의 어머니는 결혼을 하고도 시동생 뒷바라지를 하는 남편이 못 마땅했고, 그녀의 부모들에게 불평을 했다. 찰리 어머니의 부모가 미국방문을 하는 도중 남편에게 자신들이 준 지참금으로 집까지 사주었는데 왜 아직도 시동생과 시어머니의 뒷바라지를 해야하는지를 따졌다. 남편은 모욕감을 느꼈고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말이 있듯 그들의 가혹한 한 마디는 찰리 아버지의 열등의식을 건드렸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자 찰리 아버지의 언어가 거칠어 지기 시작했고 찰리의 어머니는 더 비판적으로 대항했다. 찰리의 아버지는 찰리의 어머니를 헐뜯기 시작했고 찰리의 어머니

도 찰리의 아버지의 약점을 잡아 공격했다. 나아가 찰리 대로 찬 찰리의 부모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관계를 복구하기보다 임신을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찰리가 태어났다. 마음에 서로 상처가 있는 찰리의 부모가 어린 아이 양육이라는 힘든 과정까지 겪으면서 더욱더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다. 서로의 말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 남편에게까지 사랑을 못 받는다는 설움에 찰리의 어머니는 찰리에게 더 집착했다. 찰리는 어머니와 절대적인 한편이 되어 아버지를 적대했다. 찰리의 아버지는 찰리 어머니의 집안 살림, 아이 양육에 끊임없이 모욕을 주었다. 찰리의 어머니는 찰리의 아버지가 남들에게는 얼마나 다정하게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어떨 때는 남들 앞에서까지 자신을 무시해서 민망한 적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가정이 행복하면 만사가 잘된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성어가 있다. 찰리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곤 했다. 찰리의 부모는 아이들위해 서려면 자신들의 말씨를 고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자 찰리의 '트리코틸로 매니아(Trichotillomania)'의 증세가 줄어들었고 마음속의 분노가 줄어들었다.

알게모르게 우리는 유교문화의 '인지위덕(忍之爲德)', 즉 참는 자가 덕이 있다며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참아야 한다는 교육을 수 없이 받아왔다. 마음 속에서는 불이 나는데도 말을 안하고 참아야 한다는 착각을 하기 쉽다. 이런 습관이 몸에 베다보면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게 되고 참다 참다 마음병이 생기기 쉽다. 혹은 참고 참다가 결국 하지말아야 하는 극단적인 말을 해서 악연의 관계로 치닫기까지 한다. 들은 귀는 천년을 기억하지만, 말한 입은 사흘도 못가 잊기가 쉽다. 결국 자신이 뱉은 말로 '되로 주었다가 말로 받는 겪이' 되어 두고두고 욕을 얻어 먹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법륜스님은 말을 하수, 중수, 고수로 나눈다. 하수는 성질대로 모두 다 말하면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 중수는 성질은 나지만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나에게 해를 주는것, 고수는 상대도 나도 좋으려면 내 마음속에서 '옳다', '그르다'하는 분별을 안하는 말이다. '당신때문이 아닌 그런 행동, 그런 말씨때문에 화가난다' 시비도 명령도 아닌 '알림의 말'이라는 것이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마음에 있어 고운 말을 하기가 힘이 든다면 '알림의 말'을 하려 노력하면된다. 찰리의 아버지는 자신의 말씨가 험악해진 이유를 알게되면서 찰리의 어머니를 힐책하기보다 그때의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표현했다. 찰리의 어머니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이 준 상처에 대해 진실한 사과를 했고 찰리 어머니의 부모님도 자신들의 악설을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그들의 시비여부의 말이 아닌 '알림의 말'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가족의 영겨있던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익명의 글로 칼럼의 마지막을 마무리한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부정적인 언어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자랑을 늘어 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진실되게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마음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 줍니다./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보스톤권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전상품 무약정

신년맞이
이벤트

1월까지
한달 무료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On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정해인x이규형 케미 특별해" 신원호PD가 밝힌 '슬빵' 네 커플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이 색다른 브로맨스로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

10일 밤 9시 10분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연출 신원호, 극본 정보훈) 13화가 방송된다. 슈퍼스타 야구선수였던 주인공 제혁(박해수 분)이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그리는 '슬기로운 감빵생활' 은 감옥이라는 배경 특성상 남성 캐릭터들의 브로맨스가 단연 돋보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배우를 선택하는 눈이 탁월한 신원호PD의 완벽한 캐스팅으로, 캐릭터들의 매력과 케미가 폭발하며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주인공 제혁부터 2상6방 식구들까지, 신원호PD가 직접 '슬기로운 감빵생활' 의 브로맨스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절친 브로맨스 제혁-준호

'슬기로운 감빵생활' 의 메인 브로맨스는 주인공 제혁과 절친 준호(정경호 분)가 담당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함께 야구를 했던 단짝친구인 이들은 고교시절 사고로 운명이 엇갈렸다. 사고 이후, 천재 투수로 불리던 준호는 야구를 그만두고 교도관 시험에 합격했고, 제혁은 포기하지 않고 몇 년 간 재활에만 힘써 슈퍼스타 야구선수가 됐다.

교도소에서 수감자와 교도관으로 재회하게 된 이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준호는 제혁의 험난한 교도소 생활에 구원과도 같은 존재로, 제혁이 다시 야구선

수로 복귀할 수 있게 그의 훈련을 코칭하고 직접 동영상을 찍어 구단에 보내는 등 깊은 우정을 선보이고 있다. 신원호PD는 "현장에서 연출을 하며 가장 보기 좋은 브로맨스는 단연 제혁과 준호다. 박해수, 정경호 두 배우의 연기력과 케미가 무척 좋다. 두 배우 모두 어떤 배우를 옆에 붙여놓아도 훌륭한 케미를 보여줄 수 있다" 고 전했다.

가슴 찡한父子케미 장기수-장발장

2상6방 식구인 장기수(최무성 분)와 장발장(강승윤 분)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진한 부자(父子) 케미로 호평 받았다. 교도소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던 장발장은 살인으로 25년형을 선고 받은 장기수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갑게 따랐다. 하지만 장발장은 출소를 앞두고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장기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교도소를 떠났다. 이후 모두의 예상과 달리, 장발장은 장기수를 면회와 "아버지랑 살 집 구한다고 돈 버느라 바쁘다. 한시도 있어본 적 없다" 며 출소한 뒤 함께 살자고 제안해 시청자들에게 가슴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통과 제리 문래동 카이스트-한양, 초딩커플 유대위-한양

2상6방의 한양(이규형 분)은 '케미 유발자'로 통한다. 한양은 문래동 카이스트(박호산 분), 유대위(정해인 분)와 각각 독특한 브로맨스를 형성하며 사랑 받고 있다. 먼저, 한양과 문래동 카이스트는 부딪히기만 하면 늘 티격태격하는 앙숙. 이전 작품에서는 목직카리스마와 강렬한 이미지를 전했던 이들이 '슬기로운 감빵생활' 에서



는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신원호PD는 "한양과 문래동 카이스트는 앞서 얘기한 커플들과는 또 다른 축으로, 이웅다웅 싸우는 과정에서 재미를 채워주고 있다. 다른 의미로 애정이 가는 커플" 이라고 설명했다.

한양은 또 동갑내기 수감자이자,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유대위와도 '초딩커플' 로 불리며 인기를 더하고 있다. 한양은 동갑이지만 반말에 유독 예민한 원칙주의자 유대위와 귀여운 신경전, 유치한 설전을 벌이며 케미를 발산한다.

신원호PD는 "한양과 유대위는 동갑이기에 특별한 케미가 있다. 둘은 동갑이기 때문에 서로가 제일 어렵고 애매할 수 있다. 동갑이기에 지니는 갈등뿐 아니라, 서로 너무나 다른 것들을 갖고 있

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미있는 케미가 많이 보여질 것 같다" 며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10일 방송하는 '슬기로운 감빵생활' 13화에서는 풀마니(안창환 분)에게 포수를 제안한 제혁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 없어, 주위 사람들 모두 그런 제혁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또 소장의 허가로 제혁은 일주일 간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 과연 남은 시간 안에 제혁이 지호(정수정 분)와 다시 연락 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폭발적인 브로맨스로 인기를 더하고 있는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은 매주 수목 밤 9시 10분에 만나볼 수 있다.

ichi@news1.kr

1월 14일 - 1월 2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한만큼 얻는 것이 있는</p> <p>●운수:주위의 도움을 사양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전: 열심히 하느냐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거나 한만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정: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그때그때 전하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16, 19일 길일, 14, 17일 주의.</p>	<p>소띠 막혔던 일이 풀릴</p> <p>●운수: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위기가 바뀌면서 막혔던 일이 풀릴 것입니다. ●금전:인맥을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득의 결과의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애정:꼭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떨어뜨린 일 나는 줄만 알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날개가 있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7, 19일 길일, 15, 18일 주의.</p>	<p>범띠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p> <p>●운수: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되려면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가까이에 금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속사정을 표현해야 제대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애정:자신이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주세요.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토끼띠 분주하게 뛰어다녀야</p> <p>●운수: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니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금전:일이 성사되기 전에는 입을 꼭 다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다 된 일이 막판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불만족스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평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p>	<p>용띠 얼마든지 기회가</p> <p>●운수: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금전:실패를 여기서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노력하려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좀 더 신경 써주어야 하겠습니까. 현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뱀띠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p> <p>●운수: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잘 극복해야 합니다. ●금전:가능성이 안 보이면 포기하도록 하세요. 이미 손해 본 것이 복구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애정:상대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4, 17일 길일, 18, 19일 주의.</p>
<p>말띠 뾰족한 해답을</p> <p>●운수:가만히 있으면 기본이 가라앉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당장은 금전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애정:밀다밀다 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믿게 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아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5, 18일 길일, 14, 20일 주의.</p>	<p>양띠 불쑥 통하는 마음이 생기고</p> <p>●운수: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보세요. 전보다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금전:완벽하게 하려다가는 끝이 없는 법이니 매사에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빈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잘 풀리게 합니다. ●애정:누구나 어느 날 불쑥 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무조건 빠져들어 갈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5, 19일 길일, 18, 20일 주의.</p>	<p>원숭이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p> <p>●운수:우물 안 개구리는 바깥세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주세요. ●금전: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애정:꼭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야 고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더 큰 고문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7, 20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닭띠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p> <p>●운수:꿈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금방 사라질 무지개라면 곤란합니다. 먼저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주먹구구식 일처리나 어설픈 임기응변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 돈도 들어오고 살 길이 열립니다. ●애정: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18일 길일, 14, 20일 주의.</p>	<p>개띠 여유가 생기면서</p> <p>●운수:단 하루라도 걱정이나 근심은 접어두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금전: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되는 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애정:부부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화합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16일 길일, 15, 20일 주의.</p>	<p>돼지띠 타이밍이 문제</p> <p>●운수:자신에게 주어질 일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는 정작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금전: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정:항상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한쪽은 이미 끝났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5, 20일 길일, 16, 19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1
로렌스 한국식당(이가그릴)에서 카운터 및 웨이트레스 하실 분 구합니다.
T. 781-654-5281

1/5
웨스트보로 한국식당에서 웨이터/웨이트레스 구함. 숙식 제공 가능.
T. 508-366-8898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INVEST NOW!

International Company opening in Korea 2018

Unique Opportunity to invest now!

Contact: enhancedlife1@hotmail.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강세차, 이수근식당 OK" '강식당' 시즌제 갑시다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tvN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 외전'이 종영했다.

9일 방송된 tvN '신서유기 외전 통합 감독관'에서는 본편에서 방송되지 않았던 '강식당' 촬영분을 모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편 최고 시청률 9%를 돌파했던 '강식당'이었기에, 시청자들은 마지막화 '감독관'까지 큰 관심을 가졌다.

감독관에서 공개된 비하인드 모습에서는 '강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성향을 분석하는가 하면 멤버들 역시 식당 업무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드러내는 직장인의 면모를 보여줘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드디어 멤버들이 바라던 '노래방'에 입성,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오는 멤버가 다음 회식비를 내기로 함으로써 티격태격하는 유쾌한 모습을 보

여줬다. 이때 얼굴에 핏대를 세우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 열창을 선보인 강호동부터 화려한 탭버린 실력을 뽐내고 멤버들의 노래에 중간중간 피쳐링을 넣으며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이끈 이수근까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던 모습들이 공개되며 더욱 웃음을 자아냈다.

이렇듯 '신서유기 외전-강식당'이 본편은 물론 '감독관'까지 시청률 7.1%(TNMS 제공)라는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강식당'이 '힐링 예능'부터 신서유기 멤버들의 '리얼 버라이어티'를 혼합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포맷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윤식당'이 일상에 지친 시청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었다면, '강식당'은 '강호동-이수근'의 케미를 필두로



멤버들의 유쾌하고 현실적인 노동 일기를 보여줬다.

신서유기 외전이었지만, 이제는 '윤식당 시즌2'처럼 '강식당 시즌2'를 바라는 시청자들이 많다. 멤버들이 언급했던 '강세차', '이수근 식당

' 등이 기대되는 이유다. 'I'll be back'이라는 자막을 마지막으로 잠시 우리 곁을 떠난 신서유기 멤버들, 무엇이든 좋으니 곧 다시 돌아오길 기대해본다.
ichi@news1.kr

'라디오스타' 김지민 "전현무와 열애설 꼬리표 청산 위해 출연"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개그우먼 김지민이 자신에게 붙어 다니는 열애설의 꼬리표를 청산하기 위해 '라디오스타'에 첫 출연, 솔직하고 과감한 입장을 뽐낸다. 그는 자신의 다정함에 오해하는 동료 개그맨들의 실체를 폭로했고, 최근 큰 화제가 된 절친 박나래의 '나래바' 위생상태(?)를 고발하는 등 관심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녹화 시작부터 김지민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라며 "녹화가 잘 안 풀리면 과거사를 얘기하겠

다.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이 많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렇게 본격적인 열애설 꼬리표 청산을 선언한 김지민. 그는 전현무, 조우종 등 많은 연예인들과 스캔들이 난 것과 관련해 속속들이 사정을 얘기해 웃음을 터트리게 했다. 특히 이들 중 비겁함이 제일 심한 사람을 꼽아 웃음의 절정을 찍었다.

aluemchang@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하리수를 아시나요?

하리수는 독특한 연어이다. 트랜스젠더 가수라서가 아니라 이름에 얽힌 독특한 사연 때문이다. 그의(혹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던 그는 어느 날 여자가 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다. 부모가 받았을 충격은 불문가지이다. 남자에서 여자가 되겠다는 그의 고집은 집안의 핫 이슈(hot issue)였다. 결국 여자가 된 그는(그녀는) 예명을 [하리수]로 지었다고 한다.

hot issue가 하리수가 되는 이유는 이렇다. 강세 모음 바로 뒤에 오는 /t/는 약화되어서 /d/나 /r/로 발음한다. 전문용어로 태핑(tapping)이라 하는데 거꾸로 쓴 j 즉 /r/로 표시한다. 다 무시하고 우리말 /ㄷ/과 /ㄹ/ 사이 어중간하게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규칙은 미국영어에만 적용된다. 전에 필자가 영국의 한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더니 이 규칙이 미국영어에만 적용되는 규칙임을 밝히는 조건으로 게재를 수락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영국영어가 거칠고 급한 숨소리가 들리는 데 비해, 미국영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부드럽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ot issue를 영국영어에서는 [훗 이슈]라고 하는데 미국영어에서는 [하리슈]라 발음한다. [핫 이슈]가 [하디슈]를 거쳐 [하리수]가 된 것이다. 하리수가 지어낸 말인지 그녀의 매니저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지만 참으

로 학술적이고 미국영어적인 예명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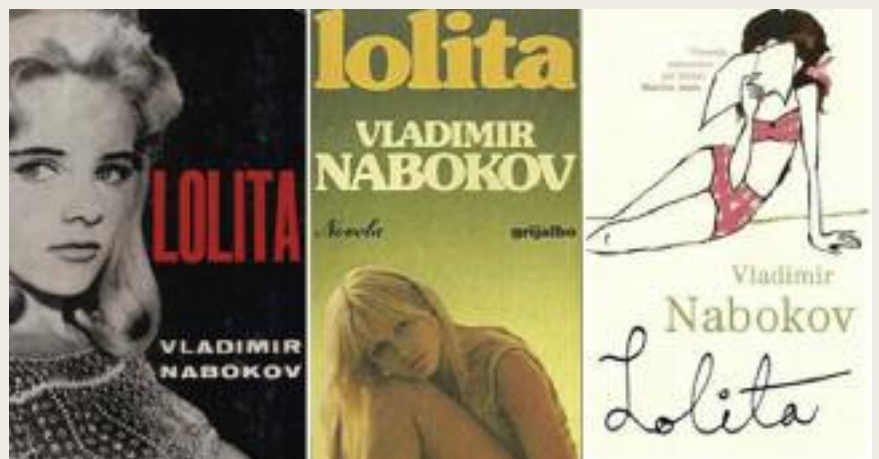
그러므로 city는 [씨티]가 아니라 [씨리]라 발음한다. city hall(시청)은 [시티 홀]이 아니라 [시리 홀]이다. 영어를 들을 때에도 [시리 홀]을 기대해야지 [시티 홀]을 기대하다간 절대로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발음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New Yorker라면 New York City를 [뉴욕 시티]가 아니라 [뉴욕 시리]라 발음할 것이다. 코난 오브라이언의 토크쇼를 기억해보자. 코난이나 게스트들은 [뉴욕]이라고도 하지만 [뉴욕 시티]나 [뉴욕 시리]라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Hello Kitty는 어떻게 발음할까? [헬로 키티]라고 발음한다면 그건 영국영어이거나 콩글리시이다. [헬로 키리]가 미국영어에 가깝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세계적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유명한 소설 Lolita는 강세가 i에 있으므로 [롤리타]가 아니라 [롤리다]나 [롤리라] 사이 어중간하게 발음된다. 물론 이런 단어들은 사전을 들어보면 [티]음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해 '천천히' 발음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영어에서 /l/과 /r/은 모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무슨 말? 이것들이 앞에 오는 자음의 발음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little은 강세가 있는 모음 바로 뒤에 /l/이 있고 그 뒤에 모음 역할을 하는 /i/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리틀]이 아니라 [리들] 혹은 [리를]로 발음된다. [리틀 엔젤스]는 우리나라 무용단이고 [리틀 머메이드]는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아,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 뻔 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가 아니라 퍼터이다. 남자들은 티샷을 멀리 보내려고 객기를 부리다가 오비를 내기도 하는데 정작 점수를 줄여주는 것은 기력지만 길다란 드라이

이버가 아니라 퍼터임을 고수들은 잘 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putter를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은 [퍼터]라 부르지만 미국인들은 [퍼러]라 한다. 우리가 그린에서 [퍼티]를 가지고 [퍼팅]을 할 때 미국인들은 [퍼러]를 가지고 [퍼링]을 한다. LPGA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박성현 선수나 필자가 좋아하는 전인지 선수는 드라이버가 장타가 아니라 [퍼팅]이 정교한 선수들이다. 골프장에서 [나이스 퍼팅]을 외치는 분들은 안 봐도 한국인이다. 지금부터는 [나이스 퍼팅] 대신에 [나이스 퍼링]이라 외쳐보는 게 어떨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세계적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유명한 소설 Lolita는 강세가 i에 있으므로 [롤리타]가 아니라 [롤리다]나 [롤리라] 사이 어중간하게 발음된다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1,2/ AP 수업 특강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풀이 중심
상시 참여와 주말 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 학과목 개인 수업 지도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외국어
경제, 심리, 기타 과목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12/23(토)~12/30(토):7일
(크리스마스 당일 휴강)

1. SAT1/ SSAT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각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실전 연습 문제 풀이
단기 Test Prep 확립

2. SAT II Subject Test

Math II,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학과목 선행 학습 지도

2018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 기간: 2018년 2월 까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명확한 업무 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 경시 대회
(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Biology, Chemistry, Physics)

“6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매트리스 Magniflex가 매트리스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 잠자면서 자동으로 스트레칭되며 디스크를 생성시켜 목과 허리통증 치료에 탁월합니다.
- 우주복 재질로 만들어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전기담요, 전기매트, O 침대 없이도 따뜻하며 전자파에 해가 없어 안전합니다.
- 특수 재질로 어느 부분도 폭 꺼지지 않게 평형을 잡아 움직임이 편안해 쾌적한 잠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사용 후기

잠자리가 너무 포근한 느낌과 보온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심하게 고을 골던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고 나면 아주 개운합니다. 제 아내는 깊은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숙면을 취해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허리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동원 (Livingstone, NJ)

허리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보통 매트리스 사용했을때 스테로이드를 5회 맞아도 병원치료를 다녀도 안났던 허리 통증이 매그니플렉스 사용후 통증병원 치료와 병행후 빠르게 통증이 없어져서 멀어게 하나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더이상 스테로이드를 안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김시몬 (Closter, NJ)

O침대를 10여년 사용했는데 몇년전부터 목주와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를 그 위에 올려놓고 사용후 잠자리가 편하고 목과 허리통증이 사라졌어요. 추우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려 했는데 신기하게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아주 따뜻합니다. 딸에게도 사주었는데 너무 편안하고 포근하다고 좋아 합니다.
김종현 (Palisades Park, NJ)

이전에 스프링 침대를 사용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로 바꾸고 허리통증도 사라지고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다리에 쥐도 잘 안나고 있습니다.
임 안젤라 (Norwood, NJ)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에 누우면 너무 편하고 베갯이 없어요. 전에는 제가 움직이면 옆에 자는 와이프가 신경이 예민해 잠을 자주 잤는데 이제는 옆사람이 움직여도 흔들림이 없어 와이프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사용후 피로가 풀리고 아침에 머리까지 개운 하다고 합니다.
Johnny Kim (Rego Park, NY)

O침대의 딱딱함이 싫어 매그니플렉스 제품을 사용하니 누우면 허리 곡선을 부드럽게 바쳐주어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이 들어 혈액 순환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민복선 (Palisades Park, NJ)

전에는 템퍼페딕 제품을 사용했는데 누우면 쪽들어가 움직임이 힘들고 답답하고 덥고 했는데 매그니플렉스에 바꾸니 여름에 시원하고 탄력이 너무 좋아 누우면 아주 편해 깊은 잠이 듭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에드워드 홍 (Fort Lee, NJ)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레지던트 한양울 네)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몰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 & B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비 몰라지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롯데 몰라지 마켓 - 엘러콧 시티)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원빈도넛 매장 옆)
201-941-0010

신영의 **세상 스케치**

62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할 역할은...

결혼 전 뉴욕에서 2여 년을 살고 결혼 후 보스턴에서 산 지 30년이 다 되었다. 겨울에 태어나서일까. 무더운 여름보다는 쌀쌀한 느낌의 찬 겨울을 좋아하는 편이다. 뉴잉글랜드의 겨울이 길긴 해도 그리 긴 줄 모르고 겨우내 산을 오르내리며 즐겁게 보내며 살아왔다. 이번 보스턴의 한파와 폭설은 겨울을 좋아하는 내게도 여간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몸이 움츠러드니 모두가 불편해지고 집 안의 온도 조절도 바깥 기온이 무작정 내려가니 그리 만만치 않았다. 이제야 움츠렸던 어깨를 잠시 펴보면서 이래저래 크리스마스를 시점으로 한 보름을 그렇게 얼음 나라에서 산 느낌이 든다.

"미국이 폭설을 동반한 '최강 한파'에 연초부터 끔찍 얼어붙었다. 캐나다 접경인 메인 주부터 최남단 플로리다 주까지 동부 해안 지역 전역이 일명 '폭탄 사이클론'(bomb cyclone)의 영향권에 들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대서양의 습한 공기와 북극의 차가운 기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저기압 폭풍을 말한다. USA투데이는 "괴물 폭풍이 동부해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동부와 중서부의 상당수 지역은 이미 연말에 내린

폭설로 뒤덮인 상태." 방송들이 예고했던 대로 눈과 비가 뒤섞인 강풍이 동부해안을 강타하고 뉴욕과 보스턴을 휩쓸고 돌아갔다.

이제는 미 전 지역에 비해 그래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보스턴과 인근 지역도 안전하지만은 않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남의 일처럼 느끼던 것을 이제는 바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지구, 지구의 온난화가끔 방송에서나 친환경 매체에서 들려주는 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생명이 직결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냥 지나치고 흘려보낼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뒤돌아보며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지구온난화는 어떤 지역에는 폭우를, 또 어떤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을 가져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을 가져온다.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 중 대표적인 예로 열대성 저기압의 강화를 들 수 있다. 2004년 일본은 한 해 동안 10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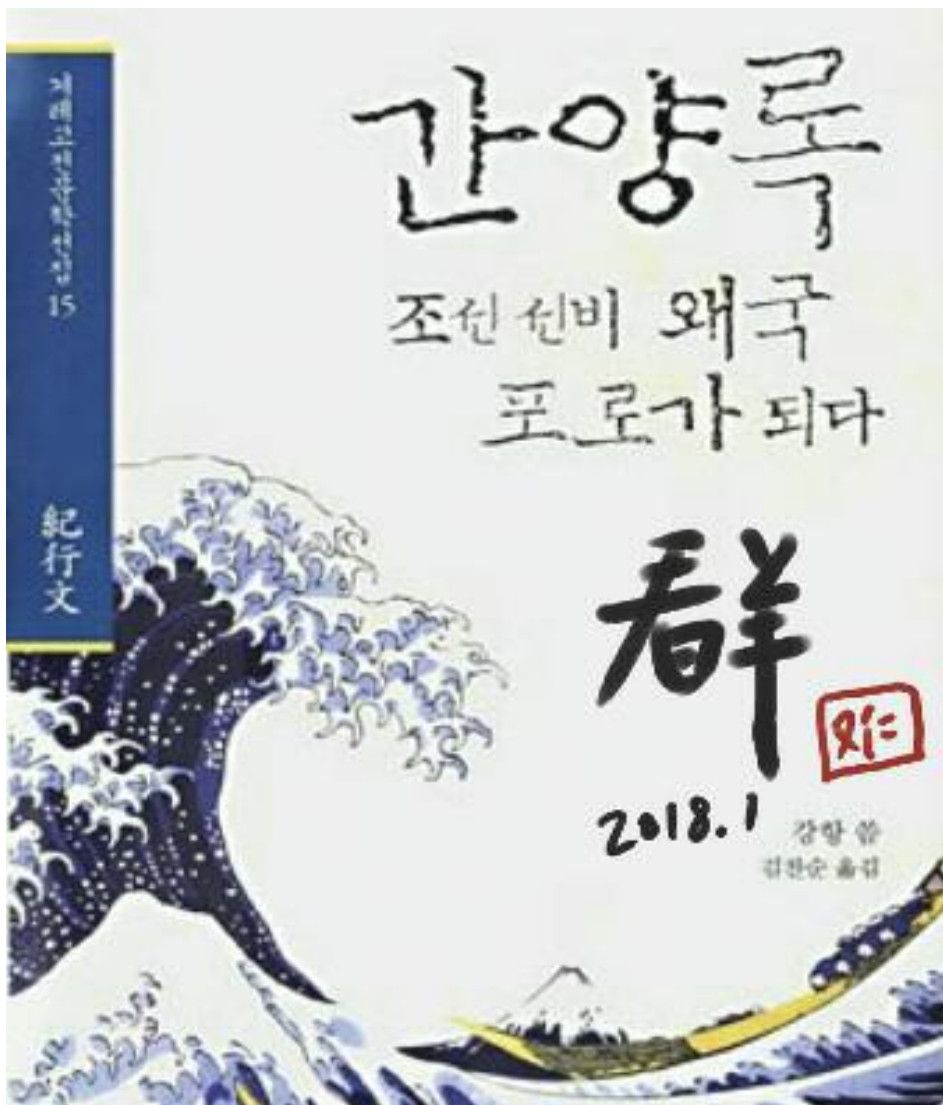
태풍이 지나가는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의 플로리다 만에서 형성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따뜻한 멕시코 만류 위를 통과하면서 세력이 점점 강해졌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줬다. 또, 2005년 7월 인도 뭍바이에서는 하루 동안 1,000 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기록을 남겼고 중국 또한 심한 홍수를 겪었다.

북극이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구 상공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분포된 지역과 적게 분포된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가 급격히 발달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화석 연료 사용이 많은 지역인 유럽, 북미, 동아시아 지역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결과를 보고도 지구온난화가 인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인은 결국 인간 활동이 주요원이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점점 가속도를 내며 우리의 일상과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는가. 이

제는 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이를 우리가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환경단체의 목소리와 실천만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까닭이다.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갖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편리하고 편안한 만큼의 잃어버리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초콜릿이나 과자 비닐봉지를 예를 들더라도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각각의 비닐포장이 되어 있지 않던가. 이처럼 작은 초콜릿, 과자, 그외의 날개의 비닐 포장에 우리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만큼의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는 것이리라. 그러니 우리는 모두 각자가 처해 있는 일상에서 작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음식물 분리수거와 플라스틱과 그 외 것들의 분리를 철저히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간양록看羊錄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해서 불평하는 건 아니란 말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서 쓰기 때문이다. 참, 국어를 국어라 하지 않고, 한국어로 해야 한다고 어느 교수가 주장했다. 국사라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한국사라고 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 일본사를 배우기는 배운건가. 기억에 감강하다. 풍신수길과 덕천강과 소서행장과 가등청청은 이름이 익었다. 임진왜란 때문이다.

강항은 정유재란 중에 이미 형조좌랑을 거쳤다 했다. 그런 젊고 활기찼던 청년 관리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때 그는 삼여년 포로생활을 기록으로 남겼다. 전쟁후 그의 제자가 글을 모아 간양록이란 책으로 묶었다. 책에는 포로생활 중에 임금에게 보내는 상소문도 있다. 상소문에서는 일본 사람들 이름을 한자漢字로 적었으니, 그냥 발음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는 풍신수길이 죽은 다음에야 환국할 수 있었다. 그가 남긴 글귀이다.

피눈물로 한줄한줄 간양록을 적으니
임그린 뜻 바다되어 하늘에 닿을세라.

당시 강항이 섬기던 임금인 선조다. 선조는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신하들에게는 상이 박했던 모양이다. 대신 그를 수증해서 의주까지 동행했던 이들에게 더 큰 상이 내렸다고 했다. 심지어 마구간 지기들도 푸짐한 상을 받았다고 했으니 말이다. 훗날 사관史官이 남긴 선조에 대한 말이다. '훈장제도를 만든 이유가 어찌 이처럼 구차한데 쓰려고 한 건가'. 조선은 이순신과 유성룡이 있었고, 강항같은 젊은 관료들이 있었으니 불행중 다행이었다.

강항은 중앙관서 좌랑이었다기에 궁금했다. 장관인 관서에서부터 참관, 참의, 정랑, 좌랑 순으로 내려간다. 좌랑은 정(품)이라 하니, 말단 간부 즈음 되는 모양이다. 전직 한국대통령 참모들과 정부요직 간부들이 줄줄이 감옥에 간다. 전직 관서에서부터 참의, 정랑을 거쳐 말단좌랑까지 아예 휩쓰는 듯 싶다. 입안이 쓰다.

사법고시는 없어졌다 했는데, 행정고시는 아직도 견제한가? 정부관리를 선발하는 시험말이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요한 1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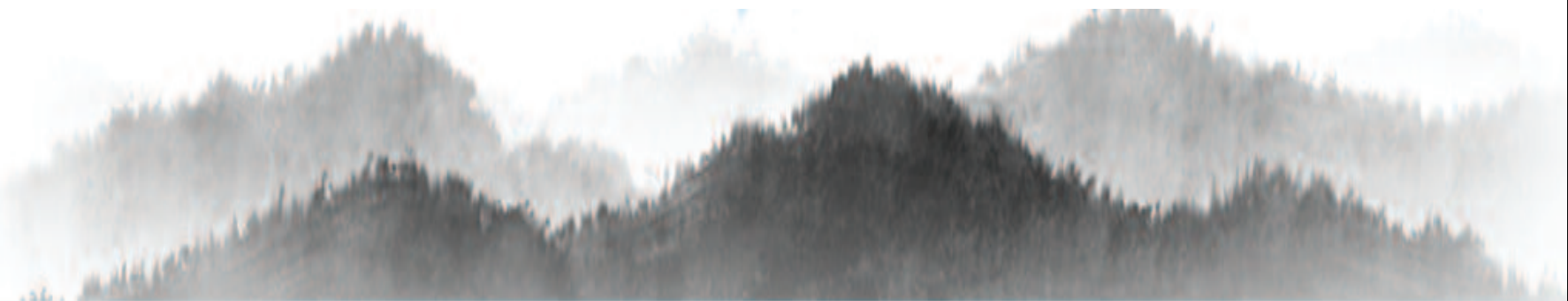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삼화고속버스를 이따금 이용했다. 앞좌석에 앉으면 눈에 띄는 자동차 로고가 마주 보였다. 풍전豊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뒤에야 풍전은 도요다라고 읽는다는 걸 알았다. 풍신수길豊臣秀吉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걸 알고 난 다음이다. 버스 회사에서 토

요다 중고 차를 수입해서 운행했던 거다. 간양록看羊錄이란 책이 있다. 책은 조선 선조대에 강항姜沍이 썼던 글모음이다. 책에선 일본글자를 우리 이두문자와 비슷하다 했다. 남의 나라 말 가지고 뭐라 하고 싶지 않다. 바담풍風이건, 바람풍 風이건, 또 풍豊을 토요라 읽는다



지난 한해동안 보스톤코리아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저희들이 1년동안
달려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무술년 올 한해에도 모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ownnewengland.com

만족한 결과의 비결

요즘 대통령, 상원, 하원 등을 보면 참 안타깝다. 미국의 현실이 모두 남 탓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의회의 무능력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돌리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비협조적이어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여당이 문제라서 탓한다. 남 탓으로 돌리면 모든 문제의 답은 참으로 쉽게 나온다. “나는 노력했는데, 저 친구가 문제다”로 답하면 되는 것이다.

경제난국의 해결은? “잘 할수 있었는데, 저 친구가 망쳐놨다.” 외교, 테러리스트 문제는? “나라면 저렇게 안한다.” 참으로 쉬운 대답이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어도 상대보다 잘 할 수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사업이 아주 잘 될 수 있는데, 불황이 발목을 잡았다.” “부모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 사업이 성공 했을텐데.” “부자인 부모를 만났다면”, “재벌 처가를 만났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우울함과 좌절감에 빠지게 한다.

이런 우울한 좌절감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한다면, 자신의 관점만 바꾸면 된다.

“내 결정은 내가 한다” 라는 철학이 간절한 시간이다.

피곤해서 쉬고 싶는데, 아내가 쇼핑을 가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갔다고 하자.

그런데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고, 차의 수리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청구된다. 남편은 화가나서 아내에게 “그래서 내가 쇼핑가 싫다고 했잖아!” 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내가 총을 겨누고 협박해서 쇼핑을 끌고 가지않은 이상, 쇼핑을 가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남에게 핑계대는 것이다.

본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바쁜데 딸아이가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딸아이가 집앞의 슈퍼마켓에서 빨리 사오면 될 것 같다고 꼬득였다. ‘오케이’ 하면서 빨리 갔다온다고 떠난 집앞 슈퍼여 행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시간이 걸리고 말았다. 결국 회의시간에 늦고 말았다. 나중에 딸아이가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요” 라

고 해서, “노, 그런 소리 말아. 학교 준비물 구입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이야. 절대 네 탓이 아니란다” 라고 했다.

사실 모든 결정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해진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진다.

사업이 실패한 것,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 돈 많은 처가를 만나지 못한것... 이 모든 것들이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고,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백이 없어서도 아니고, 줄을 잘 못서서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부보다 재미있는 곳에 한눈을 팔았고, 결혼은 돈대신 사랑을 택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내가 좋은 집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록커펠러는 맨주먹으로 시작했고, 카네기는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가문을 만들었다.

인간 관계에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못 되면 남탓으로 돌리는게 이 세상인것 같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

람들이 아닐까?

부동산 매매의 결정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던, 너무 뜨겁던, 바이어들이 몰리든지, 셀러들이 넘치든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100% 책임을 진 결정은 결과에 상관없이 아주 관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만족한 결과는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남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09

화랑세기花郎世紀, 7세 풍월주風月主 설화랑薛花郎(1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설화랑은 원효의 조상이다. 설화랑의 후손들을 보기 전에 부모의 가계를 보면, 아버지 설성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머니 설씨녀는 16세의 유화시절 어느 이름 모를 남도와 하룻밤의 사랑으로 임신을 하게되었고, 그 미남의 화랑은 전쟁터로 떠났다. 그리고 그 남도의 생사도 모른채 14년간 그를 기다리며 살다가 구리지를 만나 축실이 되었다. 그래서 설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 설씨로 되었다. 어머니의 한미한 출신과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로 인하여, 설화랑이 비록 풍월주의 지위에 까지 올랐지만, 그의 가문은 대대로 6두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후 설성은 구리지의 용양신이 되어 중하위의 벼슬도 하였다. 그러다가 구리지가 전쟁터에서 죽고난 후 금진의 남자가 되어 설화랑을 낳았다. 금진남주, 설화랑의 어머니 금진남주는 아버지가 1세 풍월주를 지낸 위화랑이며 어머니는 오도남주이다. 위화랑의 부모는 섬신공과 벽아부인(비처왕의 후궁, 벽화후의 어머니)이다. 오도는 어머니가 선혜황후(비처왕의 정비)이고 아버지가 묘심이다. 선혜후가 중릉 묘심과 오래동안 사통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묘심은 주살되었고 선혜후는 폐위되어 신궁의 제주가 되었다.222)

이제 설화랑의 후손들을 따라가 본다. 먼저

삼국유사(제4권 의해義解)에 실려있는 원효에 관한 기록 중의 일부이다. “성사聖師 원효는 속성이 설薛씨다. 그의 할아버지는 잉피공(仍皮公)인데 적대공赤大公이라고도 한다. 지금 적대연赤大淵 옆에 잉피공 사당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담내 내말內末이다. 처음에 압랑군押梁郡 남쪽 - 지금의 장산군獐山郡이다 - 불지촌佛地村 북쪽 밤나무골의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다. 마을 이름은 불지佛地인데 발지촌發智村이라고도 한다.”

다음은 화랑세기(설화랑전)의 내용이다. “공은 아들 다섯 명과 딸 일곱 명이 있다. 정궁正宮부인인 준화낭주는 큰아들 웅雉, 작은 아들 잉피(仍皮, 적녀인 정금낭주를 낳고)는 죽었다. 미실공주가 개원낭주를 아내로 맞도록 해서 아들 충죽과 선죽을 낳았으며, 딸로는 개와 개천, 선월, 양월 여섯명을 두었다. 미실공주...보종전군은 공의 소생이 되었다. 난? ...양약공주는 곧 내223) 할머니가 되신다. 잉피... 원효의 할아버지다. 설씨는 이때 크게 번창했다.”

아쉽게도 탈락된 글자가 많아서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하여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잉피가 원효의 할아버지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화랑세기에서는 많은 탈자로 인하여 원효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없

는데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 화랑세기가 존재했었고, 또한 많은 참고를 했기에 탈자 중에는 반드시 원효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었다고 본다. 즉 담내가 잉피의 아들이나 원효의 아버지로 언급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유사만 보면 원효의 할아버지 잉피공까지만 나온다. 그런데 화랑세기와 함께 보면 잉피의 아버지는 설화랑이고 설화랑의 아버지는 설성이다. 그리고 설성의 어머니 설씨녀는 가실과 함께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신화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는다. 설성의 아버지는 화랑도라는 것 밖에 모르지만 그의 아들은 7세 풍월주 설화랑, 설화랑의 둘째 아들 잉피, 잉피의 아들 담내(담남), 담내의 아들 원효, 원효의 아들 설총, 설총의 서자들로 이어진다(설흥린, 설명린, 설호린, 정처 단초유씨의 소생은 없다). 뿐만 아니라 화랑세기로 인하여 설화랑의 어머니 금진남주(설성의 부인)의 가계와 설성의 의붓아버지 구리지의 가계도 함께 볼 수 있다. 화랑세기 7세 설화랑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되고 있다.

[금진의 아버지는 위화랑이고 어머니는 오도남주이다. 오도의 어머니는 선혜황후이고, 아버지는 묘심인데 곧 천주공의 아들이다. 얼굴이 아름답고 색사色事를 잘하여 후궁들과 더불어 사통을 많이 했다. 선혜황후가 복을 빌러 절을 찾아 법에 따라 약속하여 ... 삼생三生 ... 묘심이 복주伏誅되었다. 선혜황후는 진골 정통으로 ... 제주祭主로 삼았다. 묘심랑이 ... 보다 먼저 나왔다. ...는 남해왕의 종자從子의 후손이다.]

복주는 엷드려진채 칼에 베였다는 뜻인데, 아마도 형벌에 따라 죽은 것으로 보인다. 종자는 형제, 조카의 아들을 의미한다.

222) 삼국유사(제1권, 기이편)에 나오는 ‘사금갑 사건’ 이 아마도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신화적으로 기록했을 개연성이 크다. 정비인 선혜황후가 중과 사통을 하여 아이(오도)를 낳았으니, 유교적인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신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일연은 당시 까지도 전해온 정월대보름의 전통의식과 함께 신화적으로 기록했다고 본다. - 6세 풍월주 세종(2)편 참조.

223) 김대문 자신을 말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모두가 기다려온 최고의 화제작!

올겨울 미지의 세계가 열린다



대한민국 최고의 웹툰 영화화!
 총제작비 400억원! 총제작기간 6년!
 전세계 103개국 선판매!

신과 함께


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하정우 | 차태현 | 주지훈 | 김향기 | 이정재 | 도경수 | 김용화 감독
 LOTTE ENTERTAINMENT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1월 12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아메리칸 에어라인 전세계 왕복 항공권 경품 이벤트
 facebook.com/ hitKMovie 에서 <신과 함께> 관람 티켓 인증하고
 American Airlines  항공권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기간 12/22/17-1/15/18]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ALONGWITHTHEGODS.COM  facebook.com/HitKMovie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Foreign Tax Credit)

(Q) 미국세금계산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을 외국에 냈을 때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이 소득(Income)에 대한 소득이 아닌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항목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에 세금을 낼 때는 한국에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라 한다.

1년간 소급공제(Carry Back), 10년간 이월공제 (Carry Over)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0을 벌어서 이에 대한 세금\$300 한국에 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해 미국의 세금을 계산해보니 세금이 \$350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에 낼 세금은 \$50(미국의 세금 \$350에서 한국에 낸 세금 \$300을 뺀 차액)이 된다.

반대로 한국의 소득 \$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250이었다면, 미국에 낼 세금은 0이다(미국의 세금 \$250에서 한국의 세금 \$250을 차감한 금액). 이경우와 같이 한국에서 \$300을 냈는데 미국에서 \$250만 공제해 주면 \$50은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50)이 발생하면, 이를 1년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봐 직전 사업연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1년 소급공제), 그리고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에 걸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10년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그런데 외국에 낸 세금이라 하여 모두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낸 세금이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어야 한다. 즉,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 등과 같은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나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세금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할 수도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금계산시 이를 항목별공제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만 적용해야하며, 동산에 대한 세금은 그 동산이 영업에 사용된 경우에만 영업비용(Business Expenses)으로 인정된다.

그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 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세액공제(Tax Credit)는

세금에서 세액공제액을 직접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세금 혜택이 있으나, 항목별공제 (Deduction)는 세금이 아닌 소득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항목별공제액 X 세율' 만큼의 혜택만 보기 때문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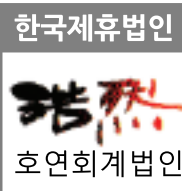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Bona Fide Resident Test/330 Days Test)는 외국의 EARNED INCOME에 대해 최대 \$101,200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또한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즉,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요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도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납세자 별로 어느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정부 세금(State Tax)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정부 세금(State Tax)을 계산할 때 다른 나라에 낸 세금은 공제해 주지 않는 주(State)가 있다. 따라서 비록 한국에 거주하지만 이러한 주의 거주자로 판정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의 연방소득세는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주 정부세금은 납부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신년맞이 이벤트

1월까지 한달 무료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자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자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19)

은퇴와 한 해를 마감하며

미국에 이민 온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자금이 충분한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은퇴자금을 투자하며 여러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국내의 정치, 이자율, 경제 전망, 생활비, 한동안 오르는 주식시장, 북한 미사일 등 걱정거리가 끊임없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은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가 꾸준히 나올 것인가?' 입니다. 평균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의료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여년간 매일 10,000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은퇴자들의 공통된 걱정은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생활비입니다.

최근 한 대학에서 '노년을 상대로 한 여러 위험' 이라는 연구논문(Risks in Advanced Age, Michael A. Guillemette, Texas Tech University,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March 13, 2017)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연구 결과 가장 큰 화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투자 결정하는데 판단(Cognitive Ability)이 점점 흐려진다는 결론입니다. 젊었을 때 알고 있던 재정 지식은 나이 먹을수록 잃어버리고 새로운 재정지식을 접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안목 역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좁아지고 확실하다고 믿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고 내림에 따라 은퇴한 투자자의 마음 역시 근심과 불안으로 오르고 내립니다. 장기투자하면 결국 주식시장은 올라간다는 이성적인 판단은 점점 멀어지고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CD나 단기 채권 그리고 현금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불가상승으로 시간이 갈수록 자산가치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 불안이 없는 은퇴자금은 살아있는 동안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How investors underestimate how long They'll live in retirement, Gus Sauter, WSJ, Feb. 12, 2017).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

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간단한 재정관리:

주식시장과 재정관리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 재정관리는 세금, 자산분배, 분산투자, 수익률, 생활비, 의료경비, 투자 위험성, 상속 등 항목별로 이해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 목적(Investment Policy)과 방법(Process)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금융계좌를 하나로 형성하는 것도 재정관리를 간단하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 재정관리 검토:

어느 가정이나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멀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현재 재정 상태와 관리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남자가 재정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당황하고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홀로 남았을 때 정서적인 불안

과 잘못된 재정관리로 남은 인생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성장한 아이들과 부모의 재정 상태를 의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재정설계사 고용:

자산 투자와 관리를 믿을 수 있는 재정설계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 관리(Fiduciary)합니다. 믿을 수 있는 재정설계사란 매년 수익률을 문서로 발표하고,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도 항목별로 구분해서 문서로 보여주고, 투자가 어떻게 되어있으며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는 물론 세금, 상속 등 돈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삼자의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 입니다. 잘못된 투자로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제대로 하는 재정관리로 남은 삶은 즐겁고 재미있게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희망해 봅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전공 및 건축/엔지니어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회계년도에 승인된 직업군별 노동조건신청서(LCA) 중 상위 63%를 차지했던 컴퓨터 관련 직종의 뒤를 이어 경영학 관련 직종의 비율이 8%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매년 대학졸업자 중 경영학, 교육학, 공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가 타전공에 많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말일까요?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는 것입니다.

H-1B가 성공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H-1B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보직 (job title)이 전문직에 해당하느냐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민국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자들께서 H-1B를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경력 없이 최근에 경영학 학사 또는 석사를 취득하신 분들일 경우 주로 Business Analysts, Business Operations Specialists, Financial Analysts, Management Analysts, Operations Research Analysts 등이 있겠습니다. 만약 경영 관련 학위와 더불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기업의 매니저급으로 입사할 수 있다면 General/Operations/Financial Managers 등의 보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들 보직은 H-1B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종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신청 외국인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없이 H-1B가 승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5년 사이 전문직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Management Analyst와 Operations Research Analyst 등의 보직으로 H-1B를 신청할 경우, 해당 보직이 전문직종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입증하는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 (RFE) 발급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부서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야가 나뉘어져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더 자주 나타납니다. 즉, 경영학 전공자로서 관련 직종에 취업한더라도 무조건적인 H-1B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은 경영학 전공자의 성공적인 H-1B 승인을 위해 H-1B 준비 단계에서부터 스폰서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사의 조직도 분석과 해당 외국인 직원이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보직분석표 (Job Description)와 회사 등을 준비하여 해당 직원이 최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경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폰서 회사의 규모나 사업 특성에 따라 해당 직원에 최적화된 보직을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파이낸스나 회계학 관련 수업 등을 수강했고 회사 내에 예산 관련 분석업무가 필요할 경우 "Budget Analysts" 는 흔히들 생각하지 않는 보직이지만 경영학 전공자에게 고려해볼 만한 보직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H-1B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서류요청 발급시 이민국의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2017년도 H-1B 심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민국 내부적으로 H-1B 심사기준을 강화시킴에 따라 올 2018년도 H-1B 대비에는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H-1B의 기본 자격요건인 전문직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노동청의 적정임금 레벨에 상응하는 급여가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H-1B 준비단계에서부터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본 칼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트럼프가 걸어잠근

H-1B

그 열쇠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있습니다.

A.A.A. 전미이민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팀
 YouTube
 G
 H-1B 법률상담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기업 고객

국제법	소송
금융법	이민법
노동 및 고용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지적 재산법
부동산	프랜차이즈법
상법 및 M&A	

개인 고객

가정법	소송
노동 및 고용법	이민법
부동산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사고 상해	지적 재산법
상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세금, 상속, 유언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턴 남서쪽: 동양 식당, 비어/와인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턴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턴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턴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9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턴 북쪽 풀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7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턴 북쪽 풀플랜트, 연매상 \$160,000 소유자 은퇴(32년)
 보스턴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턴 남쪽 팩스보로 스타디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400,000
 하이드로카본 기계, 고용인(3명)+소유자(1명)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턴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뉴햄프셔 남쪽 런드로맷(소유자 부재 중 경영), 아파트(1 유닛), 사무실,
 스토리지(100 유닛, 온도조절), 땅:3.5에이커, 모든 사업체+부동산 매매가격 \$2.2M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0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턴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남쪽 동양식당 플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턴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 SAT1,2/ AP 수업 특강**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풀이 중심
상시 참여와 주말 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학과목 개인 수업 지도**
영어, 수학,역사,과학,외국어
경제,심리, 기타 과목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 기간: 12/23(토)~12/30(토):7일
(크리스마스 당일 휴강)
- SAT1/ SSAT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각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실전 연습 문제 풀이
단기 Test Prep 확립
 - SAT II Subject Test**
Math II, Chemistry, Biology, Physics
 - AP 전과목 및 학과목 선행 학습 지도**

2018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 기간: 2018년 2월 까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명확한 업무 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 수학 경시 대회 (AMC/AIME)
- 외국어 경시 대회 (Latin, Spanish, French)
-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Biology, Chemistry, Physics)